철저히 무장하자!

중 앙 위 원 회 フレ 관 지 로 당 농

제178호 [루계 제24956호] 주제104(2015) 년 6월 27일(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지께서 김 정은동

적 기 술 전 당 설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성심성의로 지원한 일군들과 근로 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과학기술전당건설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밀고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릉라도지도국 부원 한경준은 혁명군대의 본때로 쑥섬개발전투 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있는 인민군군인들 을 물심량면으로 원호하였다.

지난 기간 원군사업에 성심성의를 다해 온 외국문출판사 산하단위 부원 장철명은 제2차 전국청년미풍선구자대회에 불러준 당의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건설장으 로 달려가 경제선동과 원호사업으로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을 고무하였다.

과학기술전당을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 의 위력한 거점으로 일떠세우는데 이바지 할 열의안고 건설장을 여러차례나 찾아 성의를 바친 내각사무국 산하단위 로동자 김은미는 오늘도 변함없이 원군길을 이어 가고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도원 김혜성은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군시대 의 애국청년으로 삶을 빛내일 일념밑에 들 끓는 전투장에서 건설자들과 숨결을 같이 하면서 로력적, 물질적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당의 과학중시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갈 마음안고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쑥 섬에 달려나간 평양시건설관리국 산하단위 통보원 윤정애는 애국의 구슬땀을 흘리면 서 성의있는 지원으로 건설자들의 전투적

사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창광봉사관리국 산하단위 부원 최혁은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열기로 세차 게 끓어번지는 전투장에서 돌격대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자 재와 물자들도 지원하여 공사속도를 높이 는데 기여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 을 많이 하여온 평양시상업관리국 산하단 위 기술준비원 오영경은 과학기술전당건설 에 공민적량심을 바쳤으며 평양시사회급양 관리국 쑥섬식당 로동자 리정애도 돌격대 원들을 돕는 일을 찾아하였다.

릉라곱등어판 부원 전숙영은 가족과 함께 과학의 섬으로 전변되는 쑥섬전역에 여러차례 찾아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을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는 건설자들 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었다.

쑥섬개발사업이 나라의 전도와 판련된 중요한 사업이라는것을 깊이 명심하고 함 흥화학공업종합대학 도서관 사서 량승관은 가정에서 마련한 많은 후방물자를 가지고 건설장으로 달려가 지원사업을 적극 벌리 였다.

은하지도국 산하단위 로동자 최경희, 평 천구역 평천1동 9인민반 김경희도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과 함께 자랑찬 로력적선 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뗫뗫이 들어 설 일념밑에 전당건설에 온갖 지성을 바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기술전 당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계속 지원하 여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해방

까조선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스와보이 야누아릐 구좁스끼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뽈스

의 뜻깊은 명절들에 즈음

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였다.

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 임,영화감상회 등 다채로 운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

조선인민군 조

혘 식

Ħ 댐 라 보 도 Ы И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조선 민 주 주 의 인 민 굥 화 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신형반함선 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고 조선 인민군 해군의 해상작전능력이 이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강화되 였다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을 더욱 강화 하고 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을 세 계적수준에로 끌어올리기 위한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전하였다.

이란의 일나통신은 다음과 같 이 보도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최첨 단수준에서 개발완성되여 조선 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비 -되는 신형반함선로케트발사훈 련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훈련을 통하여 조 선인민군 해군부대들에 실전배 비된 신형반함선로케트의 위력 이 남김없이 과시되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최근에 적대세력 들을 완전히 제압할수 있는 조 선식의 최첨단타격수단들을 련 이어 연구개발완성할수 있은것 은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기

조선 인민 군 최고 사령 관 술자, 군수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이 낳은 자랑찬 결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 인디아의 NDTV방송은 김정은령도자께서 해군부대들 에 실전배비되는 지능화된 반함 선로케트발사훈련을 보시고 주 체적해군무력강화에서 또 하나 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였 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고 전 하였다.

> 로씨야신문 《로씨스까야 가제 따》, 인디아의 PTI통신, 도이췰 란드의 데페아통신, 벌가리아신 문 《스딴다르뜨》,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 원회 인터네트홈페지, 도이췰란 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도 같은 소식 을 보도하였다.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조선인민 군 제2차 군단예술선전대경연 에 당선된 예술선전대들의 공연 을 관람하신 소식을,도이췰란 드반제연단 인터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은 이 소식과 함께 고사포병군판학교를 시찰

하신 소식을 올렸다. 이란통신과 도이췰란드의 인 제일주의방침을 사상적으로 접

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 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판 김정은동지께서 녀성초음속전 투기비행사 조금향, 림설동무들 의 비행훈련을 보신 소식을 22 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에 여

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녀성초음속 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을 보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전투비행사 들을 하늘의 꽃이라고 불러주시 면서 남성들도 타기 힘든 초음 속전투기를 처녀들이 단독으로 탄다는것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 할만 한 성과이라고 평가하시였 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미국의 CNN방송은 북조선의 김정은령도자께서 나라의 첫 녀성초음속전투기비행사들을 만나시여 하늘의 꽃이라고 치하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녀성비행 사들이 단독비행을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은 조선로동당의 훈련 수하고 최고사령관의 뜻을 충직 하게 받들어온 숭고한 혁명정신 의 발현이라고 말씀하시였다고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뽈리뜨. 루를 비롯 한 인터네트통신들, 미국의 UPI 통신, 일본의 교도통신, 캄보쟈 신문 《랴스마이 캄보쟈》, 윁남 의 신문들인 《타잉니엔》, 《라오 동》, 《테 저이》, 인터네트신문들 인 《바오 머이》, 《띤 머이》, 인 터네트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 벌가리아신문 《디르. 베게》, 뛰 르끼예신문 《싸바흐》, 알제리인 터네트신문 《알 빌라드》와 나이 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꽁고주체사상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 지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터 네트홈페지 《현지지도소식들》 도 《김정은령도자께서 녀성초음 속전투기비행사들의 비행훈련 을 보시였다》, 《북조선령도자께서 하늘의 꽃들을 접견하시였다》 등의 제목을 달고 이 소식을 전

하였다. 캄보쟈, 윁남, 벌가리아, 뛰르 끼예,알제리,도이췰란드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 였다.

【조선중앙통신】

까 준 HI

의 기간에 토론회, 경축모

【조선중앙통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창건 70돐, 조선

해방 70돐경축 뽈스까준비위원

회가 19일 싼도메쥬시에서 결

성되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 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 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 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 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우리 당의 응대한 구상에 따 라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 무리 이번서는 미래교하지기리 건설장에서 온 나라에 기쁨을 건설에 참가한 여러 단위 군인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서 새로운 평양속도가

도가 창조되고있다. 건설지휘부에 종합된 자료에 하며 미래과학자거리 2단계

초고층살림집골조공사 련이어 결속, 60여일만에 천수백세대의 살림집골조 형성 골조공사를 시작한지 60여일

규모가 큰 살림집골조공사들

에서 지난 60여일동안에 형성 만에 4 0층, 3 0층, 2 0층계 된 총살림집수는 무려 천수백세 대에 달하고있다.이것은 1천 세대분의 살림집골조를 90여

> 일만에 일떠세운 지난 창전거리건설때보다 건 설속도가 근 2배나 높 다는것을 보여주는 자랑 스러운 결실이다. 지난 25일현재 건설장적으 로 초고층건물들인 30 층짜리 살림집과 2동의 4 0층짜리 살림집골조 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 되였다.대부분의 살림 집골조가 20층계선을 넘어선 건설장에서는 지 금 건물들의 내부미장실

적이 매일 근 1 000**㎡** 에 달하고있다. 날마다 불꽃튀는 전투 를 벌리는 시공단위 일 군들과 전투원들의 혁명 적열의속에 초고층건물 들의 방대한 골조공사에 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되고 내부미장도 동 시에 추진됨에 따라 미 래과학자거리를 최단기

간에 완공하고 당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

전으로 빛내일수 있는

주는 선군시대의 비상한 건설속 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은 맡은 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건설장 전망이 확고하게 열리고있다. 시고 건설전투장을 부감하신데

이어 현지에 나오시여 한겨울의 추위속에서도 힘찬 투쟁을 벌리 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고무격 려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 나큰 믿음과 사랑은 미래과학자 거리건설에 참가한 모든 군인들 과 건설자, 돌격대원들이 세인 을 놀래우는 새로운 평양속도창 조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였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은 지난 창전거리건설때보다 살림집수 가 200여세대나 더 되고 형 식이 특색있는 50층이상의 건 물을 비롯한 10여동의 초고층 살림집들을 최단기간에 일뗘세 워야 하는 방대하고도 아름찬 창조사업이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맡은 건설대상들을 기 어이 완공하려는 시공단위 전 투원들의 혁명적각오와 애국적 열정속에 미래과학자거리건설 장은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세 차게 나래치는 포성없는 격전

장으로 되고있다. 모든 시공단위마다 공사과정 에 걸린 고리를 혁명적으로 풀 어나가는 빈틈없는 작전이 세워 지고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건설 기계와 공사자재를 시공에 확고

히 앞세워 보장하기 위한 일판도 지는 건물골조우에서 철근과 휘 지난 2월, 몸소 비행기를 타 통이 크게 벌어지고있다. 단위 별로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려진 혀장지휘부에서는 건설자재들이 대량적으로 소비되는 골조공사 에서 높은 속도를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당에서 장엄한 건설의 포성을 울린데 맞게 백두의 넋과 기상 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서 새로운 평양속도를 창조하려는 모든 단위 일군들과 전투원들의 혁명적기세와 투쟁열의는 온 건 설장에 대비약의 불바람이 휘몰 아치게 하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펼쳐놓았다. 79 - 나호동과 79-다호동, 85호동살림집 건설을 맡은 여러 단위 군인들 과 건설자들이 시공의 전문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능률적 인 건설기계도 원만히 갖춘데 이어 날마다 불같은 공격전을 들이대여 골조공사를 시작한지 50~60일사이에 30층, 4 0층짜리 살림집골조공사를

79-다호동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은 맡은 살 림집골조를 하루에 한층씩 형성 할 비상한 목표밑에 모든 공정 을 전문화하고 공사기간 부닥치 는 애로와 난판을 혁명적군인정 신으로 극복하면서 층수가 높아

련이어 결속하였다.

틀조립, 콩크리트치기시간을 끊 임없이 줄이였다. 공사기간 이 근도 극력 절약하고 현장정리를 알뜰히 하면서 단 60일만에 4 0층짜리 살림집골조를 건설 장적인 본보기적창조물로 훌륭 히 일떠세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8 5 호동살림집건설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건설자들도 4 0 층짜리 살림집골조공사에 서 수도건설력사에 빛날 자랑찬 위훈을 아로새기였다. 이곳 일 군들과 건설자들은 시공의 현대 화, 공업화실현이 가지는 중요 성을 깊이 명심하고 혼합물생산 공정으로부터 높은 건물골조상 부까지 흐름식으로 직결된 공정 수행체계를 세우고 혼합물운반 차와 압송기, 혼합물공급계통설 비를 만가동시켜 골조공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60여일만에 4 0층짜리 살림집골조우에 승 리의 기발을 휘날리는 자랑을 떡치였다.

조선인민군 박근수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이 미래과학자거 리의 상징으로 될 50층이상의 특색있는 살림집골조공사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영웅적기상 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이들 은 건물외형상 조화로운 곡선을 이루는 초고층살림집건물공사 의 특성에 맞게 매 층당 공법이 다양하고 자재소비량도 달라지 는 어렵고 복잡한 골조공사조건 에서 기발하고 대담한 공법들을 능숙히 받아들여 수십일만에 건 물의 골조가 27층계선을 넘어 서게 하였다.

부강조국의 향해 폭풍쳐 내달리는 선군조선 의 기상인양 초고층살림집골조 들이 경쟁적으로 일떠서는 건설 장에서는 지금 조선인민군 김성 두소속부대와 조선인민내무군 오영수소속부대, 대외건설지도 국과 속도전청년돌격대지도국 을 비롯한 전반적인 시공단위들 이 맡은 큰 규모의 살림집골조 들이 3 0 층계선을 향해 놀라운 속도로 하늘높이 치솟고있다.

한편 체육성과 철도성을 비롯 한 공공건물 및 봉사시설건설을 맡은 여러 단위 전투원들도 총 공격전의 불길드높이 현장의 모 습을 하루가 다르게 변모시키고

이룩한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자들은 당중앙이 세계앞에 선포한 시간 에 맡은 공사과제를 한치의 드 팀도 없이 원만히 수행할 불같 은 충정의 일념을 안고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리며 새 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길을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 게 고조시키고있다.

>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지 원 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평원땅에 또 하나의 희한한 모 습이 펼쳐졌다. 지난해까지만도 푸른 물 출렁이던 만풍동저수지 바닥의 100여정보가 옥토로 전 환되여 첫모를 냈다.

위 대 한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칩땅이 적은 우리 나라에 서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부침 땅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합니다.》

평안남도당위원회에서는 만 풍동저수지를 저류지로 만들어 기름진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공사에로 도의 일군들과 당원들 과 근로자들을 불러일으켰다.

만풍동저수지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개천-태성호자연흐 름식물길이 완공되여 관개용저 수지로서의 의의가 적어지게 되 였다.

때문에 저수지를 저류지로 전 환하면 100여정보나 되는 기 름진 부침땅을 찾아내여 농사를

지을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의 책임일군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결사관철의 의지가 안아온 자랑찬 성과

평원군의 100여정보 새땅에 푸른 주단 펼쳐진다

들은 올해 기어이 모내기철전으 로 만풍동저류지공사를 끝내고 모를 낼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 를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조직 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능력있는 일군들로 공사지휘 부를 조직하고 선전선동수단들 을 총동원하여 사상공세를 들이 대면서 온 공사장이 부글부글 끓게 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도안의 일군들 과 근로자들, 청년동맹원들은 지난 1월 숙소를 전투현장가까 이에 정하고 착공의 첫삽을 박

평성시 일군들은 공사지휘부 와의 긴밀한 런계밑에 천년책 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저류 지제방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 하도록 돌격대원들에 대한 요구 성을 높이였다. 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은 시공기준대로 흙 한삽을 뜨고 돌 하나를 쌓아도 애국의 마음안고 제방공사에서

회창군과 숙천군의 일군들은 현장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고 어려운 구간을 맡은 조건에서도 전투조직을 빈틈없이 짜고들고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힘 있게 불러일으켰다. 돌격대원들 은 새땅에서 올해농사를 지을것 을 타산하여 일부러 먼곳에서 흙을 운반해다가 쌓으며 짧은 기간에 맡은 제방성토공사를 끝 내기 위하여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나갔다.

순천시, 안주시, 증산군을 비 롯한 시, 군의 일군들과 돌격대 원들도 전투현장에 천막을 치고 감탕에 발목이 빠지는 속에서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기어이 관철할 각오를 안고 떨쳐나 맡 은 공사과제를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결사전을 벌리였다.

2단계공사를 맡은 도급기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인민들 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기어 이 해결하려는 당의 뜻을 받들 고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억척 대, 함마로 얼어붙은 땅을 파내

같은 투쟁을 벌려나갔다. 도체 신관리국, 도식료일용공업관리 국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제방 에 언흙덩이가 들어가지 않게 하면서 감탕이 밀려나는 곳에는 말장을 박고 마대에 흙을 넣어 제방을 견고하게 쌓아나갔다. 도인민위원회, 도국토환경보호 관리국, 도탐사관리국일군들과 돌격대원들도 천만산악을 단숨 에 떠옮길 기세로 완강한 공격 전을 들이대며 맡은 과제수행에 서 애국적헌신성을 높이 발휘하 였다.

도청년동맹위원회돌격대원들 은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 해 강성할 래일이 앞당겨진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청춘의 슬 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하였 다.일군들이 남먼저 감탕판에 뛰여들어 《나를 따라 앞으로!》 의 구령을 치면서 대중을 이끌 었고 돌격대원들은 곡팽이와 정

며 힘찬 투쟁을 벌리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떨쳐나선 도와 시, 군들의 일군들 과 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 에 의하여 20여km의 구간에 달 하는 58만 2 500여m³의 제 방성토공사가 짧은 기간에 성과 적으로 끝났다. 그리고 제방구조 물과 양수장건설, 합숙 및 생산건 물을 비롯한 대상공사를 힘있게 다그쳐 올해부터 100여정보의 새땅에서 농사를 짓게 되였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 서는 올해 어떻게 하나 새땅에 서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드릴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그 실현 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 다. 규격포전들과 관개수로건설 을 앞세우는 한편 큰모를 내야 하는 조건에 맞게 보장사업을 따라세워 모내기를 빠른 기간에 다그쳐 끝내도록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판철에 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를 이 룩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지금 도의 일군들과 당원 들과 근로자들은 농작물비배판 리에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특파기자 리 혁 철

원산철도차량련합기업소 일군 들과 로동자들이 일터마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기 업소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상반 년기간에만도 흥남비료련합기업 소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 많은 량의 화차들을 보내주는 성과를 거두었다.

펴올리고있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부문의 공장, 기업소일 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말 고있는 입부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현대적인 철도수송수 단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철도현대화방침을 관 철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 LICI. »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일 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앙양 된 열의에 맞게 그들의 정신력

원 산 철 도 차 량 련 합 기 업 소 에 서 을 총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

대고조전투장에 더 많은

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련합기 업소일군들은 생산현장들을 맡 고 내려가 로동자,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화차 제작과 수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 서 찾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화차제작과 수 리의 첫 공정을 맡은 주강공장 에서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공장 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전기로 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쇠물생 산을 늘일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받아들여 련합기업소앞에 맡겨 진 화차제작과 수리계획을 수행

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단조직장에서는 내부예비를 적 극 탐구동원하고 긴장한 원료를 자체로 마련하면서 가열로를 비

롯한 설비관리에 힘을 넣어 화차 제작과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 품을 제때에 생산보장하고있다. 화차조립분공장의 1화차직장 과 3화차직장에서는 생산조직

화차를

과 지휘를 짜고들어 지난해 같 은 때보다 화차조립계획을 1. 2배이상 넘쳐 수행하고있다. 1, 2가공직장들에서는 로동자 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기 위 한 사업에 힘을 넣어 화차제작 과 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 들을 질적으로 가공하고있다.

프레스직장을 비롯한 련합기업 소의 다른 단위들에서도 사회주 의경쟁의 불길높이 대고조전투장 들에 더 많은 화차를 보내주기 위 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 자, 기술자들은 조국해방 일흔돐 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들어설 열의밑에 화차생산과 수리에서 일 대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신천일

0

6월은 영원한 친위전사이시며 인간사랑의 화신, 능숙한 지하공작원 으로 명성을 떨치신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에 대한 못 잊 을 추억을 주는 그리움의 계절이다.

력사에는 자기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흔적을 남긴 혁명가,애국자 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혁명가, 애국자들의 공적은 어느 한 시기의 력사발전이나 어느 한 분야의 진보 에 기여하여 력사에 기록되였을뿐 세 기를 이어 인민의 마음속에 별처럼 길이 빛나지는 못하였다.

일찌기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 막순간까지 혁명의 수뇌부의 안녕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헌헌히 바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김정숙동지의 한생이 그토록 고귀 하고 값높은것이기에 그이를 흠모 하고 그리워하는 인민의 마음 갈수 록 절절한것이며 그이의 위대한 혁명생애를 칭송하는 인민의 송가가 날로 더 뜨겁게 울리는것 아니던가.

대사하치기.

항일전구에서 김정숙동지께서 혁명의 수뇌부를 옹위하는 방패가 되시여 높이 울리신 총성,

원쑤격멸의 총성을 울리신지도 어 언 75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 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대사하치기 전투의 총성이 잦지 않는것은 과연 무엇때문인가.

백두에서 개척된 성스러운 선군 혁명위업의 만년대계를 창창히 열어 놓으시고 오늘도 천만의 철의 대오 를 수뇌부결사옹위에로 과감히 고무 추동하고계시는 영원한 친위전사의 모습과 더불어 울려오는 력사의 총성이기때문인것이다.

우리의 가슴속에 그날의 총성이 메아리친다.

7 5년전 6월 하순 어느날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신 대오가 안도현 대사하치기에 이르러 강을 건느려고 할 때였다.

적들이 고지에서 불의에 사격을 가 해왔다. 대다수가 조선인민혁명군의 단호한 징벌을 받아 저승에 간 악질 반동놈들의 자식들과 친척들로 조직 된 악명높은 《신선대》놈들이였다.

이처럼 극악한 원쑤들과 불의에 맞다든 부대는 매우 위급한 정황에 놓이게 되였다.

한순간 주변의 지형지물을 훑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싸창을 뽑아드시고 고지에로의 반공격을 명령하시였다.

골안이 들썩하게 울리는 돌격나팔 소리와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 은 성난 사자와 같이 산릉선을 향해 돌진하였다.

정황은 순식간에 급변하였다. 그러나 워낙 악질적인 놈들이라 전 투는 더욱 치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중턱 바위 우에서 전투를 지휘하시였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사령관동지의 곁에서 그이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주변을 예리하게 살피시던 김정숙동지 의 심장은 한순간 고동을 멈추는듯 하였다.

대여섯놈이 갈밭속에 몸을 감추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계시는 산중턱 을 향하여 총구를 쳐들고있었던것이 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였다.

준엄한 항일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기나긴 세월 하루와 같이 싸움터에 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위험천만한 고비를 넘기신적이 한두번이 아니였 으나 이때처럼 위급한 때는 일찌기 없었다.

《사령관동지!》

비호같이 몸을 날리신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막아서시였다.

흐르는 시간마저 정지된듯싶던 순 간, 김정숙동지께서 드신 총구와 그이의 어깨너머로 수령님께서 뻗쳐 드신 총구에서 불줄기가 날아갔다.

간에 전멸되였다. 친위전사의 얼굴로는 뜨거운것이

갈밭으로 기여들던 원쑤들은 순식

소리없이 흘러내리였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흘리는

행복의 눈물이였다. 순간에 벌어진 일이였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순간이였다.

항일혈전의 나날 한몸이 그대로 방 탄벽이 되고 성새가 되시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용위하신 김정숙동지 의 그 열화같은 충정에 떠받들려 수령님의 안녕은 믿음직하게 보위되 고 조선혁명은 승리의 진로를 따라 줄기차게 전진할수 있었다.

위대한 친위전사로 영생하시는 김정숙동지의 한생은 이런 순간의 런속이였다.

홍기하, 무송현성의 잘루목… 얼마나 많은 격전장들이 결사용위 의 총성이 높이 울린 력사의 고장 으로 그 이름 혁명사에 길이 전해지 고있는것인가.

항일빨찌산이 낳은 위대한 친위전사 김정숙동지!

그이는 조국과 혁명의 운명을 한몸 에 지니시고 시대와 력사앞에 거연히 나서신 위대한 호위장군이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언제나 수령님을 옹호보위하는것이 조선혁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수령님 의 신변보위사업을 첫째가는 임무로, 신성한 의무로 여기시고 수령님의 안녕을 목숨으로 지키시 였습니다. 》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뵈옵 는 력사의 그 순간부터 사령관동지는 곧 조선의 운명이시라는 절대적인 신념과 의지로 심장을 불태우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

기나긴 세월 항일혁명이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승승장구할수 있 은것은 전적으로 비범한 호위장군 이신 김정숙동지를 모시였기때문

사령판동지의 안녕을 바라며 길을 떠나는 대원들에게 《념려마십 시오. 우리의 심장이 고동치는 한 사령관동지께서는 무사하실것입니 다.》라고 하시며 바래우군 하신 영원한 친위전사,

해방된 조국땅에서도 그이의 직분 은 명실공히 사령부경위대원이였다. 오랜 기간의 식민지기반에서 해방

징용, 이국살이로 흩어졌던 사람들 이 그립던 혈육들과 눈물겨운 상봉 을 하던 때가 아니던가.

이날을 위하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꿈에서도 그리던 사랑하는 혈육들과 얼 싸안고 상봉할 그날을 위하여 모든것 을 다 바쳐오시였건만 김정숙동지께서 는 백두산시절처럼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하시는 일과 신변안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회령에도 다녀오고 친지들도 찾아 보실것을 권고하는 동지들에게 하신 그이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서 뜨겁게 메아리친다. 장군님께서 건국사업에 바삐 보내 시는데 제가 어찌 집을 떠나겠습니 까. 저에게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장군님을 보위할 하나의 임무만이 있 을뿐입니다. …

일제는 패망하였으나 남조선에 미제 가 기여들었고 반동들이 날치고있어 나라의 정세가 매우 긴장한 때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밑에 진행된 3. 1인민봉기 27돐기념 평안남도 경축대회 주석단에 대한 수류탄투척 사건, 수령님의 건국로선을 옹호해나 선 강량욱선생의 가정에 대한 테로 사건…

항일혁명투쟁속에서 단련된 투사 들은 모두 새 조국건설의 중요한 초소들에 파견되였고 경위대에는 다 바쳐야 한다고 수뇌부결사용위의

난생처음 손에 총을 잡고 군복을 입은 청년들이 태반인것으로 하여 적들의 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릴만 큼 준비되여있지 못하였다.

01

둏

싣

읚

《김정숙동무가 왔으니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정세가 얼마나 긴장하였으면 김정숙동지의 평양도착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김책동지가 이런 첫인사를 하였겠는가.

《김책동지, 마음을 놓으십시오. 경위대를 강화하는 문제는 제가 힘 써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산에서 싸울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장군님을 보위하는것보다 더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애오라지 이런 신념으로 마음을 불태우시며 솔선 호위병의 임무를 수행하시고 경위대를 강화하는 사 업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정숙동지 이시다.

수령님께서 집무실로 나가실 때나 저택에 들어오실 때가 되면 의례히 밖에 나와 주변을 살펴보시고 수령님께서 저택에서 일하실 때에는 저택주변을 세심히 순찰하신 친위전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김없이 지키신 불변의 일과였다.

사납게 몰아치는 비바람도 아랑곳 하지 않고 서계시는 김정숙동지의 모습은 백두밀림에서 사령부귀틀집 을 지켜 밤을 새우시던 친위전사의 모습그대로이시였다. 어서 들어가 쉬시라고 간절히 말씀올리는 경위대 원들에게 산에서 싸울 때부터 버릇 이 되여서 이제는 어쩔수 없다고 하시며 흔연히 미소를 지으시던 그날 의 김정숙동지의 모습 우리 어이 잊

을수 있으라. 경위대원들을 만나실 때마다 지난 날 항일혁명투사들은 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을 보위하는것 을 가장 큰 영예로 간주하였다고, 아무 리 가렬한 싸움이나 간고한 행군때 에도 언제나 사령부의 안전을 첫자 리에 놓고 살피였다고, 숙영지에 들 면 맨 먼저 안전한 곳을 골라 사령부 의 천막자리를 잡았으며 제일 강력한 기관총들은 언제나 사령부를 보위하기 위하여 준비되여있었다고. 투사들은 임무를 받고 떠나갈 때면 《사령관동지의 건강을 부탁합니다.》 하는것이 작별의 인사였고 임무를 마 치고 돌아오면 《사령관동지께서 건강하십니까?》하는것이 상봉의 인사였다고, 위대한 장군님을 보위하는 가장 영예로운 초소에 선 우리 경위 대원들은 항일혁명투사들처럼 장군님의

신념과 의지의 기둥을 억척같이 세워주신 위대한 친위전사,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와 관련하

步

여서는 천만번중 단 한순간의 실수 도 허용치 않는다.

바로 이를 위하여 김정숙동지께서는 경위대원들의 사격술을 높이는데 각별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던것이다. 경위대원들의 총알이 단방에 목표

물을 명중시키지 못하면 그 총은 돌 멩이나 몽둥이만도 못하다! 한번 안되면 열번, 열번 하여서도

안되면 백번, 천번 해서라도 경위대 원들의 사격술을 높여주려는것이 친위전사의 일념이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이런 불타는 심혈과 로고로 해방직후 청소하던 우리의 경위대는 높은 정치사상적준비와 군사기술적준비, 강철같은 규률로 다 져진 정예부대로 자라나 가렬처절한 전화의 나날에도 혁명의 수뇌부를 철옹성같이 보위하지 않았던가. 6월.

해빛과도 같은 미소로 사람들의 얼굴 에 웃음을 주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신 억만줄기 해살이시였으며 용암보다 뜨거운 인덕으로 만사람을 안으시고 인생의 봄을 꽃피워주신 능숙한 지하공작원 으로서의 김정숙동지의 혁명활동에 서 분수령을 이룬 뜻깊은 계절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위대한 혁명생애

의 마지막시기 김정숙군을 찾으시였 던 어버이수령님의 모습을 잊지 않 그날은 김정숙동지께서 그 땅을 뗘 나신지도 반세기가 훨씬 지난

주체80(1991)년 가을이였다. 자주색저고리와 곤색세루치마, 목이 긴 버선을 신으시고 사람들과 혈연의 정을 맺으시던 6월의 나날들의 김정숙동지의 체취가 슴배 인 유물들을 하나하나 돌아보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슴에서는 사랑하는 전우, 영원히 잊을수 없는 혁명동지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가시는 굣마다에서 인민들을 혁명 적으로 교양하고 항일전에 불러일으 켜 조용하던 마을을 드디여 항일혁 명의 위력한 활동지반으로 꾸리신 능숙한 지하공작원 김정숙동지,

마을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손녀, 누이, 언니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신 인민의 딸 김정숙동지, 어느덧 하루해가 뉘엿뉘엿 넘어가

는 저녁무렵이였다.

허나 귀중한 혁명동지의 발자취가 신변을 보위하는데 몸과 마음을 어려있는 땅에서 쉬이 발길이 떨어

아보시고 또 보시며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였다.

위

전

김정숙동지께서 신파지구 혁명조 직 핵심성원들의 비밀모임을 지도하 신 석전양복점은 어디인지, 혁명조직 성원들과의 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신 광선사진관과 오함덕객주집, 물레방아간집은 어디인지…

이날이 어버이수렁님께서 사랑하는 전우의 체취가 어려있는 군을 찾으 신 마지막날이 될줄 어이 알았으랴. 위대한 혁명생애의 나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지하공작원시절 의 김정숙동지를 그려보시며 가끔 자신께 이런 물음을 제기하시였다. 어떻게 되여 김정숙동무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후원속에서

어려운 지하공작을 해낼수 있었

을가? 그때마다 이런 대답을 찾으시며 사랑 하는 전우, 영원한 혁명동지에 대한 감동을 금치 못하신 우리 수령님 이시다.

만일 김정숙동무가 인민에게 참다 운 사랑을 바치지 않았더라면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인민은 그를 돌아 보지도 않았을것이다. 인민을 위해 자기를 깡그리 바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일발의 순간에 진정한 도움을 받을수가 없다. 김정숙동무는 인민에 게 사랑을 바친것만큼 자기가 그처 럼 아끼고 품어준 인민들로부터 응당한 보답을 받은것이다!…

불러도불러도 끝이 없는 항일빨찌산 대장 김일성동지에 대한 노래로 낮이 나 밤이나 쉬임없이 설레이는 백두밀 림처럼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에 대한 하많은 전설들을 전하는 력사의 고장으로 그 이름 빛나는 연사,

연사땅과 더불어 전해지는 이야기 는 또 얼마나 우리의 가슴에 뜨겁게 새겨져 김정숙동지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더해주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6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사지구 혁명전적지 들을 돌아보시였다. 연사땅은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혁명전적지들 을 돌아보시는 시간과 때를 같이 하여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주체 2 8 (1 9 3 9)년 6월 하순 조국광복회 연사지구위원회와 연 사지구당조직을 결성하신 사지봉 상공에 세쌍의 령롱한 무지개들이 백 두 산 - 판 모 봉 사 이 로 길 게 섰다.

물매가 급한 참판도로를 따라 오르고내리시기를 그 몇번, 구호문헌 을 보존하는 원통유리관을 두드려도

지지 않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뒤돌 보시고 글발들도 유심히 들여다보시 기를 그 몇번…

이깔나무, 분비나무, 참나무들이 꽉 들어찬 릉선길, 산새들이 우짖는 숲속에 들어서시여 마치 고향으로 돌아오는 기분이라고, 조국의 향취가 은은히 안겨온다고 감개무량해하시 던 그날의 김정숙동지의 음성이 들려오는듯 한 오솔길을 걸으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형언할수 없는

그리움의 세계에 잠겨계시였다. 어머님의 체온이 슴배인 혁명사적 건물앞에서 이 집주인이 당콩을 섞은 좁쌀밥에 산나물무침과 고추장 이 전부인 검소한 식사를 어머님께 따로 올리려 하자 굳이 사양하시며 집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였다는 강사의 해설을 감명깊이 들으시면서 도 해방된 조국에서 옷장도 없이 옷 걸개를 리용하시고 자그마한 보통침 대와 책상 하나가 있는 검박한 방에 서 생활하신 어머님에 대한 추억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름을 금치 못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그 간절한 그리움으로 우리 장군님 어머님의 체취가 력력한 집앞에서 력사에 길이 전해질 뜻깊은 기념사진 을 남기시였다. …

조선혁명의 성스러운 총대력사는 곧 수령결사용위의 력사이다.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서 용암마 냥 끓어번지는 혁명의 수뇌부결사 옹위의 정신과 투지는 주체혁명위업 을 끝까지 완성할데 대한 간곡한 당부를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의 정신과 투지이다.

그것은 또한 수령결사용위의 위대한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한생을 그 성스 러운 위업에 다 바치신 영원한 친위전사 김정숙동지의 숭고한 념원 이 꽃핀 찬란한 현실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가 꽉 들어찬 이 땅에 수령결사옹위의 투사가 몇인지 굳이 묻지 말라.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김정일동지의 전사,제자들이며 어머님에 대한 영원한 일편단심을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수뇌부결사용위의 제일선을 당당히 지키고있다.

항일의 전설적호위장군 김정숙동지 의 평생의 념원이 선군혁명의 앞길에 더 광휘롭게 빛발치기에, 어머님의 축복의 미소 가득찬 이 땅에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기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최후승리의 환호를 올릴 날은 머지않아 반드시 올것이다.

본사기자 량

들여다볼줄 알아야

교시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

어느해인가 우리 나라에서는 초봄부터 9 0여일간이나 왕가물 이 계속된적이 있었다. 이렇게 되 자 모판에 뿌릴 물도 없었으며 당 장 모내기를 해야 할 논판들이 모 두 바닥을 드러냈다. 그러던 그해 6월 어느날이였다.

한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 일군들의 손 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면서 가물 이 심하여 얼마나 고생하는가고 하시며 농장원들의 생활형편부터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논을 바라보시였다.

논이 말이 아니였다.

안따나나리부

령 도 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 가물 고. 가물때에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땅속을 들여다볼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도 막고 우물 과 굴포도 파서 가물피해를 극복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아무리 하늘을 쳐다봐야 사람들 의 고충을 덜어줄수 없다고, 사람 은 언제나 자기의 앞길을 개척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이르시면서 가 물극복의 중요한 방도는 땅속물 을 찾아내는것이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신 심에 넘쳐있는 농장일군들에게 우물과 굴포를 팔 자리도 잡아주 시고 그 크기와 형태에 이르기까 지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한 일 군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 신대로 보도 막고 굴포도 파고 우 물도 파서 농사를 잘하겠다고

위대 한 수령님께서는 그 일군을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미덥게 바라보시며 좋다고,꼭 그 렇게 하라고, 그럼 난 동무들을 믿고 가겠다고 하시며 농장일군들

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농장원들은 땅속물을 찾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펼쳐나섰으며 낮과 밤이 따로 없이 보도 막고 우물과 굴포도 팠다.

골짜기의 곳곳에서는 드디여 땅속물이 솟구쳐올랐다. 사람들은 눈시울 적시며 환성

을 올리였다. 그해 이 농장에서는 논과 밭에 서 많은 알곡을 거두어들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이 흘러 세대

는 바뀌였다. 그러나 지금도 이곳 농장을 찾 으시여 가물을 이겨내도록 이끌 어주시고 고무해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뜨겁 게 울려오고있다.

세계전쟁력사의 어느 갈피에 도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위해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은 였다. 의족이

전화의

은 사랑의 이야기가 지난 조 손수 그의 바지가랭이를 걷어 국해 방전쟁시기에

영예군인학교의 설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손길아래 꽃펴 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영예군인들은 조국을 위하

여 피흘리며 싸운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입니다.》 주체 4 1 (1 9 5 2)년 6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포연을 헤치 시며 어느 한 영예군인학교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식당과 학생들의 방,지어는

마당가의 우물까지 들여다보시 며 생활에서 불편이 없는가를 하나하나 헤아려보신 우리 수령님,

그이께서는 그래도 마음이 놓 이지 않으시여 애로되는것이 없 는가를 알아보시였다.

한사람같이 아무 애로도 없다고 누구나 전쟁승리밖에는 다른것 말씀드리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을 더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는 그러면 동무들의 상처나 한번 보자고 하시며 의족을 한 영예군인의 앞으로 다가가시

하지만 세상에 없는 전설같 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올리시고 벗어놓은 의족을 들어

잠시후 안색을 흐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

세심히 살펴보시였다.

하지만 청소한 우리 공화국과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와 의 전쟁을 온 세계가 가슴을 조이며 지켜보고있던 주체40 (1951)녀 3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협의회를 여시고 영예군인

학교를 설치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영

예군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생

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봐주

꽃펴난 사랑의

는 나이어린 동무가 이렇게 부상을 당했다고 하시며 어 디서 부상당했는가고 물으시

였다. 그의 시며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야기하시였다. 그날 학교사업에서 나서는 문

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 을 주시고 차에 오르시려던 위대하 수렁님께서는 처녀의 앞 에 오시여 다시 손을 잡아주시

면서 걱정말라고, 이제 미국놈 들을 몰아내고 다 고쳐주겠다고 거듭

이르시였다.

처녀는 뜨거운 격정속에 그이를

이 동무의 얼굴을 잘 고쳐줄수 없 우러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예군

>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피를 흘린 영예군인들을 이 세상에

위대하고 뜨거운것인가.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전 설같은 사랑의 이야기는 어머니 당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가고있는 영예군 인들만이 아닌 우리 인민들의

본사기자 리금분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던 말씀드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마다가스까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마다가스까르공화국 대통령

라자오나리맘피아니나각하 나는 마다가스까르독립 55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호상 리익에 맞게 발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 하면서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영

평 양 주체104(2015)년 6월 26일

조국의 푸른 숲에 깃들어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간다. -문수봉혁명사적지에서-본사기자 김 진 명 찍음

게 의족이 너무 무겁다고, 이것 시는것이였다. 은 영예군인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탓이라고 엄하게 지적 하시였다.

나날에

저 동무들이 누구를 믿고 피 를 흘리며 싸웠겠는가고, 당을 믿고 우리를 믿고 자기 한몸을 바쳐 싸운것이라고, 우리 영예 군인들은 금싸래기와 같이 귀중한 사람들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뜨겁게 교시하실 때

영예군인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영예군인들자신도 전쟁시기 인것만큼 의족이며 의수를 만들 어준것만으로도 만족해하고있

었지만 우리 수령님께서만은 더 쓸모있고 간편하게 만들어주지 못한것을 가슴아파하시였던것 이다. 영예군인 한사람한사람을 미더운 눈길로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처녀 영예군인의 얼굴에서 시선을 멈 추시였다.

화상당한 그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교시하시 꼭 고쳐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딸이 이렇게 되였소. 우리가 내 딸이 이렇게 되였

겠는가에 대하여 알아보시였다.

치료를 잘하면 될수 있다는

일군들의 이야기에 위대한

있소! 꼭 고쳐줍시다. … 처녀는 위대한 수령님께 눈물 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가 없

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고칠수

잠시후 용감한 처녀가 울면 되는가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 드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굴을 꼭 고쳐주자고 다시금

인들에게 아무러한 불편도 없도 록 잘 보살펴주라고 일군들에게 몇번이고 당부하시고서야 차에 오르시였다.

보란듯이 내세워주시려는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얼마나

마음속에 오늘도 소중히 자리잡 고있다.

사 역 앞 예

실로 깊은 뜻이 담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부는 나에 대한 충실성이 매우 지극한 동무였

습니다. 》 얼마전 고산진혁명사적판을 찾은 우리는 하나의 사적물앞에 서 걸음을 멈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용하신 이불이였다. 이불에는 깊은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해방후 항일의 녀성영웅

드리시기 위해 정성껏 수를 놓 아 만드신 이불이였던것이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원화형상 도 직접 하시고 비단실에 몸소 물감을 들여 색실도 마련하시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께

그러시고는 정해진 시간이 따 로 없이 짬시간이 나는대로 수 틀을 마주하시고 자정이 넘도 록, 때로는 밤을 새우시면서 특 출한 수예기교와 섬세한 기법으 로 한뜸한뜸 정성담아 수를 놓

였다.

으시였다. 이불에 수놓아진 그림들에는

이불가운데에는 꼬리치며 노 는 한쌍의 금붕어와 활짝 핀 국 화송이들이 수놓아져있다.그 그림에는 김정숙동지께서 항일 전의 나날 백두밀림의 우등불가 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조 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간직하셨던 소중한 꿈과 해방된 조국땅에 수령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행복과 긍지 그리고 통

일된 강토우에 수령님을 천년만

년 길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

가려는 불타는 지향과 혁명적랑

만이 담겨져있다. 그리고 네귀에 수놓아진 함박 꽃과 등꽃은 김정숙동지께서 항 상 절절한 념원으로 간직하셨던 위대한 수령님의 건강과 우리 인민을 이끄시고 앞으로도 성스 러운 혁명의 길을 헤쳐가실 수령님의 안녕만을 바라시는 티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반영

중심부를 향해 머리를 쳐든 해바라기들과 붉게 핀 백일홍은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을 높이

하고있다.

모시고 하늘땅 끝까지 따르며 어떤 광풍이 몰아쳐와도 수령님 에 대한 충정의 한마음을 변함 없이 간직하고 혁명의 절개를 끝까지 지켜갈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 그리고 후대들도 그 소중 한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를 바라시는 김정숙동지의 절절한 념원을 상징하고있다. 정녕 그이께서 손수 마련하신

이불에는 어버이수령님께 운명 도 미래도 다 맡기고 바쳐오신 백두산녀장군의 충정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었다.이런 간절한 념원이 담긴 이불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처럼 귀중히 여기시고 준엄한 조국해 방전쟁시기에도 전후복구건설 시기에도 언제나 김정숙동지의 뜨거운 체온으로 느끼시며 정히 사용하시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숭고한 모범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령도자를 모시는 전사의 자세와 립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혁 기내여온 소식에 의하면 철산군

로농통신원들이 보내온 소식 로농통신원 리두한동무가 보 선주리당위원회에서는 사상교

내여온 소식에 의하면 흥남제약 공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직관선 동의 불바람을 일으켜 공장안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 정신이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구호. 전 투소보, 경쟁도표, 속보 등을

통한 선동을 기동성있게 진행

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전례없 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도록 하고있다. 특히 의약품생산과 공장개건 속도가 높아지는데 맞게 이동속 보를 널리 리용하여 종업원들속 에서 발휘되는 긍정적소행들을 제때에 소개선전함으로써 그들 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들로 속보발간을 전투적으로 함 으로써 직관선동의 실효를 높이 고있다. 공장의 모든 작업반들에서는 걸개식전투속보를 발간하여 전 투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

직관원들은 생동한 제목과 내용

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방대삼동무가 보 양사업을 심화시켜 당원들과 농장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킴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 신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 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이룩 해나가도록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작업반

들에 내려가면 이신작칙하면서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농장원대 중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그 들은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 고 농장에서 도달해야 할 알곡 생산목표들도 알려주고 부닥치 는 난판도 대중의 사상을 발동 하여 풀어나가고있다. 리당위원회일군들의 깊은 관

심속에 당초급선전일군들도 대 중의 정신력을 분출시키기 위 한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사상교양사업을 언제나 앞세

워나가는 리당위원회의 사업에 의하여 농장의 당원들과 농장원 들은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당 면한 농사일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게 되였다.

본사기자

이런 일군이 당과 조국의 기억속에 영생한다 덜 건설건재공업성 부국장이였 김철동무의

우리 혁명의 갈피마다에는 당과 수령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높은 실력과 실적으 로 받들어온 일군들의 뚜렷한 삶의 자욱자 욱이 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다.

조국이 알고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일군 이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얼마전까지 건설건재공업성 부국장으로 사업하다 순직한 김철동무의 고귀한 생이

이 물음에 대답을 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 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집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선 참 호 에

김철동무는 지난 1 0여년간 순천세멘트 러져 평양의 중앙병원으로 후송되기 전 련합기업소의 생산추진을 위해 현지에 내 려가 사업하면서 나라의 세멘트생산과 내 화물공업의 주체화실현에 이바지하는 실로

신을 비추어보게 하는 거울, 본보기로 되고

그의 생을 통하여 우리는 여기에 인민경 제 한개 부문, 한개 단위를 맡은 일군들이 삶과 투쟁의 위치를 어디에 정하고 어떤 실 력과 실적으로 조국을 받들어야 하며 후대 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에 대해 적으려 한다.

화 선 지 휘

사업한 년한은 15년이다. 그중 부국장으 로 사업한 13년간 그는 순천세멘트련합 기업소에 내려가 일하였다. 하기에 성에는 그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

김철동무가 건설건재공업성 정무원으로

는 사람이 더 많아 어쩌다 성에 올라올 때 면 접수에서 근무성원들이 그를 멈춰세우 고 어디서 오는 손님인가고 물을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럴 때마다 김철동무는 웃으며 대 답했다고 하다.

《순천에서 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여 김철동무는 자연히 사람들의 기억속에 성의 부국장이 아니라 순천사람으로 남게 되였다.

순천사람, 우리는 그 부름이 단순히 10 여년동안 나라의 세멘트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중요생산단위에 내려가 사업한 그의 년한이 준 호칭이 아니라는것을 순천 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의 취재과정에 알게 되였다.

련합기업소에는 생산지휘로 현지에 내려 와 살다싶이 하는 성정무원들이 적지 않았 다. 그들중에는 국장과 부국장들도 있었고 상이나 부상들도 때없이 내려와 걸린 고리 를 풀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고 했다.

그런데 현지에서 함께 생활한 성일군들 까지도 그를 부국장이기 전에 순천사람으 로 생각하는데 습관되였다고 했다.

우리가 만난 련합기업소 책임일군들로부 터 기술자, 로동자들에 이르기까지 김철동 무에 대한 말만 꺼내도 우리 부국장이라고 부르며 눈물이 글썽해졌다. 그가 이곳 기업 소의 세멘트증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심 과 피타는 노력을 기울여왔는가를 밤이 새 도록 이야기해준 평범한 기술자, 기능굥들 은 김철동무가 련합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기사장처럼 여겨질 때가 더 많았다고, 그는 진정 순천사람이였다고 말했다.

그는 덩지큰 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에 서 제기되는 크고작은 문제들을 모두 자기 가 풀어야 할 문제로 여기고 도맡아안고 뛰 여다닌 일군이였다. 보수작업에 필요한 용 접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두팔 걷고 달라붙어 용접봉생산능력을 몇배로 끌어올린 그였고 멎어있는 산소발생기를 끝끝내 살려내여 생산정상화의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사람도 바로 김철동무 였다. 현장에서 알게 된 오랜 기능공이 집 구들에 불이 잘 들지 않아 걱정이라고 지나 가는 소리로 한 말도 새겨두었다가 자신이 직접 구들을 고쳐놓아주고서야 마음을 놓 은 그였다. 이렇게 그는 당장 생산실적과 별로 련판이 없어보이는 일도 자기가 풀어 야 할 중대사로 여기며 크고작은 일을 다 맡아안고 뛴 련합기업소의 진정한 주인의 한사람이였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생산을 담당하 여 사업을 시작한지 몇해만에 김철동무는 성에서 과학기술부문을 맡은 부서의 부국 장으로 소환된적이 있었다. 그의 폭넓고 풍 부한 지식과 과학기술을 대하는 진취적인 사업기풍을 고려하여 성에서 취한 조치였 다. 가족들도 늘 나가살던 그가 이제는 집 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였다고 기쁨을 감추 지 못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새 로운 직무로 소환되여서도 그의 마음은 늘 순천에 가있었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에서 판건적인 고리가 바로 내 화물생산공정을 현대화하는데 있다는 생각 을 늘 품고있던 그는 탐구와 사색을 거듭하 며 현대화방안을 하나하나 무르익혔다.

이렇게 완성한 설계안을 안고 며칠씩 순 천에 내려가 일군들과 협의도 하고 일판을 벌려놓았으나 공사는 좀처럼 생각대로 추

진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김철동무는 안해에게 말했다. 《아무래도 내가 순천을 담당하여 다시

내려가야 할것 같소.》

무겁게 하는 그의 말에 안해는 웃으며 물

었다. 《아무렴 그렇게 큰 련합기업소에 사람

이 없어서 당신이 꼭 가야 한단 말이예요? 유리공장에서 기사장을 하던 때처럼 꼭 내 가 있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을 이젠 버리세 요. 당신은 련합기업소의 책임일군이 아니

라 성일군이란 말이예요.》 그러나 그의 고집은 완강했다.

《바로 성일군이기때문에 내가 가야 한 다는거요. 기업소를 살릴 방도를 놓고서도 제가 맡은 일이 아니라고 외면한다면 그 런 일군이 열,백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다음날 그는 성의 책임일군들을 찾아갔 다. 당장 걸린 내화벽돌문제를 풀 방도와 전망적인 현대화방안까지 하나하나 사리정 연하게 설명하며 자기를 다시 본래의 위치 로 돌려보내달라고 하는 그의 제의를 책임 일군들은 심중하게 받아들였다. 현지에서도 련합기업소의 실태를 환히 꿰들고 막히는

큰일을 해놓고 우리곁을 떠나갔다. 살아있을 때에는 강성국가건설의 한개 전선이 당의 뜻대로 맥박치게 하는 기발이 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우리 일군들이 자

있는 김철동무!

고 여러차례나 제기해왔던것이다. 이렇게 되여 불과 몇달만에 그는 다시 순천으로 내 려오게 되였고 련합기업소 일군들과 로동

자들모두가 제 집사람이 돌아온듯이 반겨

그가 착상하고 발기한 공사들이 하나하 나 추진되여 내화물생산광정이 제구실을 하기 시작함에 따라 소성로보수주기가 점차 늘어나고 세멘트생산량도 계통적으로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기업소에서 최근년간 고난의 행군시기에 비해 4배이상이나 되는 세멘트생산실적을 기록하여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응대한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된데는 일군들의 눈길이 미 처 미치지 못하는 구석구석에서까지 일감 을 찾아 한고리, 한고리 풀어나가며 생산활 성화의 길을 열어놓은 김철동무의 숨은 노력이 크게 깃들어있다고 련합기업소

당책임일군은 진심으로 말했다.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라면 누구나 지방출 장이라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군 한다. 하지 만 부국장사업 전기간 김철동무에게서는 그 런 말이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올수 없었다. 1 3년간을 순천의 세멘트생산기지에 내려가 사업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오 히려 현지를 뜰 때면 이렇게 말하였다.

《한 이틀쯤 평양출장을 갔다오겠는데 그동안 맡은 일들을 더 잘해달라구.》

그는 성일군이기 전에 기업소의 일군이 였고 집을 평양에 둔 순천사람이였다. 잠간 평양에 갔다오면서도 오래동안 집을 떠나는 세대주처럼 걱정부터 앞세우며 이곳 로동계급에게 하많은 당부를 남기군 하던 일군이였다.

《부국장동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너무도 무심히 듣군 하던 평양사람의 평양출장이 라는 말을 되새겨보면 눈시울이 뜨거워지 군 합니다.》

김철동무는 아래에 내려가 뒤짐을 지고 목소리를 높이는 행세식일군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방도를 내놓고 앞장에서 실천하는 일군이였다. 화간나이에 부치인 벼ㅇㄹ 쓰러진 때까지 1 3년동안 그는 한모습으로 살았다. 색바 랜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현장마다에서 밤 낮이 따로없이 앞채를 메고 뛰여다니는 그 를 나이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국장》이 라고 친근하게 불렀고 젊은 축들은 《우리 부국장아바이》라고 따르며 존경했다.

그러나 그토록 가까이에서 허물없이 지 내온 그들도 김철동무가 불치의 병이라 는 진단을 받은 몸이라는것을 현장에 쓰

까지 모르고있었다고, 그런 불같은 사람 이 갔다는것이 지금도 믿어지지 않는다 고 하였다.

단 한사람, 련합기업소에 내려와 외래자 합숙의 한호실에서 함께 생활한 성일군만 이 알고있었다.

평시에도 얼굴에 병색이 돌던 김철동무 의 몸상태가 올해에 들어서면서 더 나빠졌 다. 식사를 거의나 하지 못하고 깊은 밤이 면 모진 고통속에 신음하군 하면서도 소화 장애때문이라고 웃어넘기는 김철동무를 강제로 끌다싶이 하여 련합기업소병원에

여러가지 검사가 진행된 후에 열린 의사협 의회는 퍽 오랜 시간 계속되였다. 협의회뒤 끝에 성일군과 마주앉은 기술부원장은 청천 벽력같은 소식을 알려주었다. 불치의 병이라 는것이였다.이제는 손을 쓰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러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에 성일군은 저도 모르게 어성을 높이였다.

《그럴수 없습니다. 그는 죽어서는 안될 사람입니다.》

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잘 알고있습니다. 그 러나 이것은 과학적인 진단이고 의학의 힘 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부원장은 이제라도 본인에게는 알리지 말고 안정시키면서 집중치료를 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다보며 김철동무는 이미 모든것을 짐작 한듯 태연하게 말했다.

나이많은 사람의 간절한 부탁이요.》 내화물생산공정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관철 하고 당결정을 집행했다고 당당히 말하게 될 그때까지만은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는 절절한 부탁앞에 성일군은 머

이때로부터 그는 두달 남짓하게 병마와

심한 아픔으로 쓰러지는 순간까지 자신 이 지켜선 전구를 떠나지 않은 그를 두고 순천사람들은 한생을 1선참호에서 산 화선지휘관이라고 뜨겁게 추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위해 헌신하며 뚜렷한 자욱을 남기고 간 김철동무의 생은 오늘날 성, 중앙기판 일군 들이 경제강국건설에서 정해야 할 삶과 투쟁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귀중한

너의 위치는 어디인가?

충직하게 받들줄 아는 일군의 위치는 바로 화선이다.

실적으로 아로새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김철 는 투쟁에 또다시 뛰여들었다. 동무를 지금도 그토록 잊지 못해하는것은 그가 기업소의 생산정상화와 내화물공업의 주체화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실적 을 남겼기때문이다. 그것이 없다면 13년 이 아니라 20년, 30년을 내려와있었다 해도 대중의 기억속에 그렇듯 지울수 없는 모습으로 새겨지지는 못했을것이다.

그는 어떤 어려운 과제도 과학적신념과 실력으로 풀어제끼고야마는 실력가형의 일군이였다.

세멘트공업은 내화물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도 례외가 아니였다. 소성로가동일수를 원만히 보장할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간곡한 유훈을 판철하는데서 초미의 문제로 나선것이 바로 내화물이였다.

김철동무는 그것을 자진하여 맡아안고 력 합기업소의 내화물분공장에서 몇해동안 살 다싶이 하였다.

현대적인 굴식소성로를 일뗘세우기 위해 설계원들과 함께 앞선 단위들을 돌아보고

한자리에 모여앉은 날이였다. 《어떻소. 대담하게 결심하고 통이 크게 해볼만 한 일이 아닙니까?》

김철동무의 물음에 설계원들이 입을 모

《신심이 생깁니다.저 단위들처럼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늘 과묵하던 김철동무의 얼굴에 웃음이

비끼였다. 《해봅시다. 그러되 우리 식으로 더 발전 시켜봅시다. 저마다 앞선 단위들을 그대로 본따려 한다면 새것은 누가 창조하겠소.》

그는 설계원들과 함께 한장 또 한장 도면 을 그려나갔다. 앞선 단위들의 경험과 자기 들의 새로운 착상을 합쳐 현대적인 굴식소 성로설계를 완성하였고 짧은 기간에 훌륭 히 일떠세웠다. 결과 종전에 비해 2배이상 의 질좋은 내화벽돌을 생산하면서도 원가 를 훨씬 줄이였으며 소성로보수주기를 근 4배로 늘이게 되였다. 이것은 그대로 세멘

트증산에로 이어졌다. 김철동무는 그에 만족하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인 내화물공업의 주체화를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무연탄 데가 없는 김철동무를 다시 내려보내달라 가스화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

데려간 사람이 바로 그였다.

《저도 부국장동무가 우리 기업소에 얼

침통한 어조로 안타까움을 호소하던

너무도 뜻밖의 사실에 놀란 기색을 감추 지 못하고 나온 성일군의 얼굴을 유심히 들

《세상에 오진이라는것도 있지 않소. 난 믿지 않소. 그리고 내가 쓰러지기에는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있단 말이요. 그러 니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오.

리를 숙였다. 하여 이 사실은 비밀로 붙여 졌다.

의 싸움에서 몸을 버티여냈다. 단순히 자신 을 지탱해낸것이 아니라 남은 생을 깡그리 불태우며 나라의 내화물공업의 주체화실현 에 커다란 공헌으로 되는 뚜렷한 자욱을 새 기였다.

진리를 가르쳐주고있다.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이 그 어느때보다 격렬히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벅찬 시대가 제기한 이 물음앞에 김철동무는 한개 성의 일군으로서 참으로 고귀한 대답을 남기였다.

그렇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가장

인생의

1,500℃이상의 온도를 보장해야 하는 내화물소성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받아들 였다는 자료는 아직 그 어느 나라 기술서적 에도 없었다. 고온공기연소기술을 도입하는 데 성공한 우리 나라의 어느 한 단위의 경우 에도 소성온도는 기업소의 소성로에서 요구 하는 온도에 비해볼 때 근 200℃나 낮은 수준이였다. 과학계에서도 그만한 온도에 견 딜수 있는 축열체개발은 사실상 넘어서기 어

려운 극한점으로 여기고있었다. 평시에 그의 높은 실력을 두고 탄복하며 늘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 탄회하게 나누던 련합기업소의 기술일군도 심중히 생각해보고 결심하라고 충고했다.

《전문연구단위에서도 아직 해내지 못한 것을 자체로 해보겠다는건 지나친 욕망이 아닐가?》

《이건 결코 욕망이 아니네. 누구든지 반 드시 해내야 할 과제이고 과학적신념에 관 한 문제이네. 자네도 공업로들에 고온공기 연소기술을 받아들이라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라는것을 잘 알지 않나. 난

이미 결심이 섰네.》 김철동무는 첨단돌파의 초행길에 주저없 이 나섰다.

그때부터 그의 발걸음은 과학원의 해당 연구단위와 인민대학습당에로 끊임없이 이 어졌고 지칠줄 모르는 탐구와 사색의 나날 이 흘렀다. 그 과정에 그는 연구사, 기술자 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독특하고 기발한 착 상으로 끝끝내 새로운 축열체를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무연탄가스화를 위한 알탄성형 에 필요한 점결제문제도 그렇게 풀었다.

그의 피타는 탐구와 노력이 깃든 과학기 술성과들이 하나둘 열매를 맺기 시작하여 지금은 가스화공정이 마감단계에서 일떠서 고있다. 비록 그는 우리곁에 없지만 사람들 은 그 창조물에서 김철동무의 모습을 보고

실력은 타고나는것이 아니다. 그는 실력 이 없는 사람은 일군의 자격을 상실한 존재 이며 어제날의 실력만으로는 발전하는 현실 에 따라설수 없다는 신조를 안고 한생 피타 는 노력으로 꾸준히 지식의 탑을 쌓아왔다. 몇해전까지만도 련합기업소에서는 설비 보수작업에 필요한 산소의 부족으로 애를 먹고있었다. 백수십리 떨어진 여러 단위에 서 산소를 구입해오군 했지만 그 량은 절대 적으로 모자랐다.

사실 기업소에는 산소를 전문적으로 생 산하는 작업반이 있었다. 그런데 설비가 수 십년전의것이고 또 너무 낡아 가동을 못하 고있는 상태였다.

김철동무는 산소생산설비를 무조건 살려 내기로 결심하였다. 팔소매를 걷어올리고 앞장에서 해체전투를 벌리는 그에게 함께 일하던 성의 일군이 물었다.

《부국장동지는 기계공학을 전공한적도 없는데 이 설비를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 까?》

스파나를 쥐고 수걱수걱 일손을 다그치 며 김철동무는 짧고도 명백히 대답했다. 《배워야지요. 우리가 새로 만든다는 립 장에서!》

규산염공학을 전공한 그에게 있어서 산 소생산설비를 살리는 전투는 또 하나의 새 로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기도 했다. 그 나날 김철동무가 찾은 단위 들과 전문가들,긴장한 시간을 쪼개가며 탐독한 기술서적들은 그 얼마인지 모른 다. 비록 전공분야가 아니라 할지라도 현 실이 절박하게 요구하는 문제앞에서는 주 저나 외면을 모르고 그것을 다름아닌 자기 가 앞장에서 풀어야 한다는 일군의 관점은 숨죽었던 산소생산설비를 단순히 원상복 구하는것이 아니라 새롭게 개조하는 결실 을 안아왔다.그의 피타는 노력으로 기업 소에서는 설비보수에 필요한 산소를 자체 로 보장하고도 남아 다른 단위들에까지 보

내주게 되였다. 김철동무는 3개의 외국어를 소유한 사람이였다. 한해에 몇번 평양에 올라올 때 에도 성의 사무실이나 집이 아니라 인민대 학습당에 가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세멘트 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자료 들을 하나하나 수집하여 기업소생산활성화 와 현대화사업에 적극 리용하였으며 콤퓨 터로 쉽게 볼수 있도록 종합하여 기술일군 들에게도 넘겨주었다. 그의 노력이 스민 자료들을 기업소의 기술일군들이 지금도 리용하고있다.

한생토록 지식의 탑을 쌓으면서도 만족 을 몰랐던 그는 예순을 가까이한 나이에 련 합기업소의 범위를 벗어나 수직소성로에까 지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 어디에나 있는 중소규모의 세멘트생산공장 들에서 찾아볼수 있는 수직소성로들까지 모두 현대화할 꿈을 안고 그에 대한 착상을 부단히 무르익혀왔던것이다. 김철동무는 바 로 이런 사람이였다.

실력이 없는 일군들은 현장에 내려갔다 고 해도 유람식으로 돌아보거나 겉멋만 부 리게 된다. 혹 성사무실을 떠나 아래단위에 내려갔다 해도 현실이 해결을 기다리는 대

고 귀 김철동무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리용하

던 철궤안에서는 많은 기술문건들과 함께 그가 시더 시박 하컨레도 나왔다 터진 부위를 깁고 뒤축을 덧붙인 그 신발을

쓰다듬는 로동자들의 손이 가볍게 떨렸다. 세멘트증산을 위해, 로동자들을 위해 바 닥이 닳도록 신고 다닌 그 신발이 기술문건 들과 더불어 김철동무가 남긴 재산의 전부 였다. 세멘트먼지가 푹 배인 신발등에 눈물 방울들이 점점이 떨어졌다.

《부국장동지!》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귀중한 일군의 모

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하루빨리 관 철하자고 언제나 땀에 절고 먼지오른 작업 복을 입고 일하던 일군, 로동자들과 강냉이 국수도 달게 들고 한가지 별식이 생겨도 함 께 나누던 그의 모습은 상급기관의 일군이 라기보다 한가마밥을 같이 먹는 평범한 로

동자의 모습이였다. 언제인가 가스화공사장에 찾아왔던 기업 소의 일군이 김철동무에게 수고한다면서 좋

은 담배 한갑을 내놓은적이 있었다. 그는 고급담배이니 혼자서 피우라고 가 벼운 롱까지 섞어가며 권하였다.

담배갑을 받아들고 한동안 눈여겨보던 김철동무는 그것을 도로 내밀며 말했다. 《이왕이면 담배가 아니라 사탕 한봉지

면 더 좋겠구만.》 아이들처럼 사탕은 왜 찾는가고 핀잔하 는 일군에게 김철동무는 대답했다.

《스무대밖에 안되는 담배 한갑을 누구 코에 바르겠소. 사탕 한봉지면 한알씩이라 도 골고루 차례지겠는데…》 담배 한갑과 사탕 한봉지,

내것과 우리의것이라는 상반되는 의미속 에 오직 우리라는 고상한 세계에서 사는 일 군의 깨끗한 량심이 비껴있었다.

단 한g의 세멘트, 한장의 내화벽돌도 오 직 기업소를 위한 일에만 쓰는 일군, 사업 과 생활에서 그 어떤 특전도 바라지 않는 청렴결백한 일군이였기에 로동자들은 김철 동무를 두고 언제나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 로 사는 일군이라고 말하군 하였다.

몇해전 설비보수에 필요한 자재구입으로 어느 한 공장에 찾아갔던 그에게 그 단위의 일군이 자재를 턱대고 많은 량의 세멘트를 요구한적이 있었다.

그때 김철동무는 지금 백두산선군청년발 전소건설장에서는 우리 아들벌 되는 청년들 이 삶은 감자로 끼니를 에우면서도 쌀이 아 니라 세멘트를 더 요구한다고, 그래서 우리 로동자들이 세멘트 한줌이라도 더 내자고 땀흘리며 일하고있다고 나직이 말하였다. 부탁이나 하듯이 조용히 하는 말이 얼마

나 큰 충격을 주었던지 그 일군은 아무 말 도 못하고 자재를 내주었다고 한다. 티없이 깨끗한 량심을 지닌 일군의 모습 은 가정이라는 거울속에 더욱 선명하게 비

쳐지는 법이다. 지금도 락랑구역 판문2동 28인민반에

책안을 내놓을수 없는 일군. 실력이 없는 일군은 또다시 사무실을 찾아 틀고앉게 된 다. 그러한 일군들에게서는 아무런 실적도 기대할수 없으며 오히려 시끄러운 존재, 장애물로 된다.

실력으로 조국을 받들고 실력으로 조국 을 사랑하라. 김철동무가 많은 사람들에게 한 이 말은 결코 훈시가 아니였다.

굴식소성로를 일떠세우는 전투가 한창 벌어지고있던 어느날이였다. 김철동무가 벽 돌축조를 하고있는 한 돌격대원에게 급히 다가왔다.

《뭘하고있소? 강의시간이 다 되여오는 데 빨리 대학에 가지 않구.》

김철동무의 말에 함께 일하던 돌격대원 들의 눈빛이 일시에 그들 두사람쪽으로 쏠 리였다. 그 돌격대원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 육체계에 망라된 청년이였다.

《모두가 땀흘리며 긴장하게 일하는데 나만 빠지기가 미안해서…》

《무슨 소릴 하오. 대학공부는 이것보다 더 큰 전투야. 기업소의 래일이 동무와 같 은 청년들한테 달려있소.》 김철동무의 말은 그 청년뿐이 아닌 다른

돌격대원들에게도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김철동무는 어느 생산현장에서나 기다리 는 일군, 누구나 먼저 찾는 일군이였다.

련합기업소 기술임군들은 물론 책임임군 들도 걸린 고리가 있으면 그에게로 먼저 달 려오군 하였다.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가 론의되는 협의회에서 열변을 토하는 모습 은 볼수 없었으나 그는 늘 일군들과 기술자 들에게 현실성있고 뚜렷한 기술적방안을 내놓고 귀중한 조언을 주군 하였다.

《아마 그의 노력으로 현실에 도입된 과 학기술성과들을 묶어 론문을 쓴다면 박사 론문이 되고도 남았을것입니다. 하지만 그 는 모든 성과를 고스란히 우리 기술자들에 게 돌려주었습니다.》

내화물분공장에서 만난 기술일군의 이야 기였다.

사실이 그랬다. 1 0여년을 그와 함께 일 하며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해온 기술자들 이 적지 않은 발명증서와 과학기술성과등 록증, 창의고안증서를 받아안았지만 김철동 무에게는 그런것이 없었다. 기술일군들에게 많은 착상과 방법론을 튕겨주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한 그였으나 일군에게 있어서 그것을 너무도 응당한 일로, 마땅한

본분으로 여기였다. 김철동무는 실력의 높이를 바로 조국에 대한 사랑의 높이로 여긴 사람이였다.

기업소일군들이나 종업원들보다도 세멘 트생산을 위해 더 많은 고심과 노력을 기울 인 성일군, 실력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놓을 수 없는 많은 창조물마다에 남겨놓은 김철 동무의 실적을 그들은 오늘도 소중히 추억

하고있다.

뉴 산 있는 김철동무의 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일군이 지녔던 청렴결백한 성품에 머리

8 0 고령의 어머니와 남편을 대신하여 집 안살림을 도맡아하느라 나이보다 걸늙은 안해, 3 0살이 넘은 두 아들이 함께 사는 두칸짜리 살림집.

수많은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여 나라에 수억원에 달하는 리익을 주면서도 자신을 위 해서는 단 한푼의 리익도 탐내지 않은 청렴 결백한 일군이 사랑하는 안해와 자식들에게 물려준것은 나라에서 준 집과 수십년전 이사 올 때 들여놓은 얼마간의 집세간들뿐이다. 어느 가정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가족사

진조차 별로 남기지 못했다. 그것은 수십년전 중앙동물원에서 가족들

과 함께 찍은 자그마한 흑백색사진 한장뿐 이다.

그 사진에서는 3 0대 한창나이의 김철 동무가 웃고있다. 자그마한 유리공장의 기사장으로부터 련합기업소의 생산을 지도하는 성기관의 부 국장에 이르는 그 수십년세월 조국땅 방방 곡곡에 일떠선 대기념비적창조물들에 자기 인생의 흔적을 무수히 남긴 그였지만 자기 가정에 남긴 사진은 색날은 그 사진뿐이다.

사진을 보여주며 김철동무의 둘째아들 김광명동무는 우리에게 말했다.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들어오는 날

이 명절이나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의 칼도마소리가 유별나 게 크게 울리는 날이면 오늘 아버지가 오는 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

하지만 그런 《명절》이 1년에 몇번이 나 있었던가.

지군 했습니다.》

지난해 어머니날도 김철동무는 기술개건 공사에 참가한 돌격대원들과 함께 보냈다. 기술개건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아 맥을 놓고있던 그때 김철동무가 조직한 들 놀이는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으 며 특히 돌격대에 망라된 녀성로동자들에 게 큰 힘을 주었다.

하지만 그날 김철동무가 돌격대원들을 고 무해주기 위하여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 는 어머니에게도 찾아가보지 못하고 들놀 이를 조직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최학문 동무를 비롯한 몇몇 성일군들뿐이였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며 김철동무의 안해 김복인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여느때는 꼭 필요한 말이나 몇마디 하고 전화를 끊던 사람이 그날은 미안하다는 말 을 곱씹으면서 전화를 놓지 못하더군요. 오 죽 마음이 무거웠으면… 그때 노여움이 앞 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게 후회됩 니다.》

이것이 김철동무가 자기 가정에 남긴 추 억의 전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아버지 가 남길수 있는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 그것은 당과 수령을 충정다해 받드는 진실

한 인간만이 지닐수 있는 정신적재부였다. 그가 불치의 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때로 부터 얼마후 출장차로 집에 잠간 들렸을 때

였다. 아버지의 병이 깊어졌다는것을 알게 된 맏아들 김인철동무는 지방에 있는 료양소

에 가서 안정치료를 받자고 했다. 하지만 김철동무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 이지 않았다.

《내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 혹 1년쯤은 견딜수도 있겠지. 하지만 난 못 가겠다. 당 앞에 결의다진 그날까지는 넉달밖에 안 남 았는데 내가 이제 목숨이 아까와 물러서면 내화물공업의 주체화가 그만큼 늦어지고

당결정도 지킬수 없게 된다. 설사 치료를 받고 10년, 20년을 더 살수 있다고 해도 난 이 넉달과 바꿀수 없



구나. 》 그 러 면 서 그는 심 한 아픔을 가까스로 이겨내며

또다시 순

천으로 뗘 났다. 걱정 어 린 눈길로 아버지를 바래우는 두 아들에

게 김철동 무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너희들도 당원이니 이 아버지를 리해

하리라고 믿는다.》 그는 수령의 유훈판철, 당정책판철을 삶 의 전부로 간직하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당 의 뜻에 참되려는 로당원의 불같은 열망을 두 젊은 당원의 심장속에 심어주었다.

어찌 그뿐이랴.

두 아들을 실력으로 당을 받드는 기둥감 으로 내세우려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거웠 기에 군사복무를 마친 맏아들이 평양건축 종합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그리도 기뻐했 으며 로동자로 일하는 둘째아들도 일하면 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되도록 적극 떠 밀어준 김철동무였다.

그는 어쩌다 집에 들리면 다른 일은 못 해도 두 아들의 학습정형만은 엄격하게 검 열하군 하였다.

정녕 그는 두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기 전에 참된 당원이였고 훌륭한 스승 이였다. 이런 인간이 후대들에게 물려준 숭고한

정신과 넋이야말로 그 어떤 재부에도 비길 수 없는 크나큰 정신적유산인것이다. 가스화생산공정확립을 위한 공사가 마감 단계에 이르렀을무렵인 지난 4월 자신의 생명을 깡그리 연소시키며 피타는 노력을 기울이던 김철동무는 끝내 현장에서 쓰러

건설건재공업성 당책임일군인 김철순동 무가 림종을 앞둔 그를 찾아왔을 때 김철 동무는 혼미해지는 의식속에서도 책임일군 의 손을 꼭 부여잡으며 힘겹게 말했다.

《당결정을 집행하지 못한채… 결승선에 다 와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깝

습니다. …》 김철순동무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들이 김철동무의 손에 떨어졌다.

《부국장동무, 용기를 내라구. 이렇게 쓰 러져선 안돼.》 언제나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며 자기를 떠 밀어주던 미더운 당일군의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려는듯 한참이나 김철순동무를 올려

다보던 김철동무는 온몸의 힘을 모아 부탁 했다.

《내화물…주체화 꼭 실현… 당창건 7 0돐에 서물로…드려주십시오.》 이 말을 남기고 의식을 잃은 그는 다시

깨여나지 못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같은 충정과 뛰여난 실력,깨끗한 량심으로 당을 받들고 대중을 이끌어온 김철동무를 우리 시대 일군의 전형으로 높이 내세워주 시였으며 그의 유가족들에게도 대를 두고 길이 전할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

시였다. 참다운 인간은 아름다운 추억속에 영생

한다.

으로 안고 살며 죽어서는 아름다운 추억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가 바라는 진짜배기일군이라는것을 김철동무 는 자신의 한생을 통하여 증명하였다. *

살아서는 백옥같이 순결한 량심을 재산

오늘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일군은 바로 김철동무와 같이 자기 수령을 사심없이, 변함없이 충정과 실력으로 받드 는 일군들이다. 강성국가건설의 한개 전선을 통채로 맡

나는 사람, 바로 그런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한전호에 설수 있는 전우, 동지이다. 김철동무는 위대한 수령님들 가까이에

겨도 마음이 놓이고 없으면 빈자리가 크게

서, 경애하는 원수님 가까이에서 단 한번도 기념사진을 찍은적이 없다. 하지만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용위 전을 위해 한몸을 초불처럼 불태운 그는 사실상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을 가장 가까이에 모시고 살며 투쟁 한 우리 당의 참된 전우, 동지였다.

일군들이여! 모두다 김철동무처럼 당과 수령을 충정 과 실력, 량심으로 받드는 일군이 되자.

본사기자 김 진 수 본사기자 김충성 본사기자 승철 진

양묘장은 산림복구전투에 대한 립장과 관점을 보여준다

강원도, 평안북도, 황해북도의 시, 군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실태를 专卫

뜻깊은 올해에 전체 인민이 산림복구에 총동원되여 봄철나무심기전투를 힘있게 벌 림으로써 10년안으로 모든 산에 푸른 숲 이 우거지게 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걸음을 떼였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온 나라가 떨쳐 나 적기에 수억그루의 나무를 정성다해 심 는 과정을 통하여 가까운 몇해어간에 벌거 숭이산면적을 대폭 줄일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실제로 황해북도 린산군에 서는 앞으로 해마다 400정보이상의 면 적에 나무를 심어 3~4년동안에 나무심 기를 완전히 결속할 목표를 세웠고 많은 지 역들도 나무심기를 기한전에 끝낼 결심 이다.

이런 신심은 저절로 생기는것이 아니다. 자체의 양묘기지가 튼튼하기때문에 밝은 전망이 보이고 든든한 배짱을 가지게 된것 이다. 이번에 봄철나무심기전투를 단숨에 의 기상으로 불이 번쩍 나게 벌리고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게 된것도 중앙양묘장을 비롯한 각지 양묘장들에서 충실한 나무모를 대대적으로 생산보장한

결과이다. 인민군대에서 새로 꾸리고있는 종합양묘 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양묘 장은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선결조건이며 병기창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는데서 양묘장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갓조하시였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튼튼한 양묘기지 는 산림조성사업의 성과를 물질기술적으로 담보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같 습니다. 총포탄이 보장되지 않으면 전투 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양묘장들에 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지 못하 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릴수 없습니다. »

봄철나무심기전투를 통하여 우리모두가 절감한것처럼 산림복구전투에서 양묘장은

邔

히

림

전

<u>O</u>

OH

전시에 탄약을 생산보장하는 군수공장이나 다. 치밀한 조직사업에 성과의 예비가 있고 같다. 특히 각지 사림경영소 모체양묘장은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수준 을 높이고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대량생산 하는데서 핵심적역할을 하는 거점이다. 때 문에 당에서는 모든 산림경영소 모체양묘 장을 중앙양묘장처럼 현대적으로 건설하도 록 한것이다.

이 사업에서 회양군, 원산시를 비롯한 강 원도의 여러 지역이 큰 진전을 이룩하였 다. 비결이 있다.

지난해 일부 도들의 여러 지역이 봄철나 무심기계획을 미달했다. 기본원인은 나무 모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못한데 있다. 양 묘장을 잘 꾸려놓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 을것이다.

교훈을 찾은 강원도에서는 혁명적대책을 세워 짧은 기간에 시, 군산림경영소 모체양 묘장들을 강화하였다. 성과의 밑바탕에는 산림복구전투를 대하는 일군들의 높은 자 각과 강한 조직력, 전개력이 놓여있다.

창도군을 실례들어 보자. 지난 시기 이 군의 나무모생산은 시원치 못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토대가 빈약한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실 태를 놓고 이곳 일군들이 찾은 심각한 문 제점이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총포탄이 보장되 지 않으면 전투에서 승리할수 없는것처럼 양묘장들에서 나무모를 원만히 생산보장하 지 못하면 산림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벌 릴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런데 지난 시 기 나무를 심는데만 급급하고 양묘장을 강 화하는데 힘을 넣지 못하지 않았는가. 산림 경영소에만 맡겨놓고 집행자라는 립장에 서서 그 사업을 혁명적으로 조직전개하지 못했다. 결국 자재나 로력이 아니라 당정책 을 대하는 우리 일군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 는것이 아니겠는가. …

이렇게 자각한 일군들은 양묘장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세웠다. 양묘장을 단순히 나 무모생산기지로가 아니라 산림복구전투를 대하는 자신들의 속마음을 비쳐보이는 거 울로 여기고 양묘장개건목표를 높이 세웠

힘은 대중에게 있다는 관점밑에 일본새에 서도 혁신을 일으켰다. 분공과 장악. 총화 와 재포치 등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으며 건 설현장에 몸을 푹 잠그고 걸린 고리들을 건 건 찾아내여 즉시 풀어나가면서 양묘장상 태를 개선하는데 드센 박차를 가했다. 군적 으로 산림경영소를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내미는 한편 이곳 종업원들이 세포군산림 경영소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양묘장을 훌륭히 꾸린 모범을 따

라배워 주인의 역할을 다하게 하였다. 뒤떨어졌던 이곳 양묘장이 일약 개변된 데는 일군들의 이런 사상관점과 일본새가 깃들어있다. 오늘 이천군, 회양군, 문천시를 비롯한 강원도의 많은 지역 산림경영소 모 체양묘장이 야외재배장, 원형삽목장, 온실, 나무모영양단지생산설비 등을 갖춘 믿음직 한 나무모생산기지로 일신되게 된것은 이 처럼 일군들이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에 헌신분투한 결과이다. 올해 봄철 강원도가 나무심기전투를 힘있게 벌릴수 있은것도 양묘장들을 튼튼히 꾸려놓은것과 뗴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른 지역들에서도 찾 아볼수 있다. 평안북도 운산군, 동창군, 태 천군과 황해북도 연탄군, 신계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양묘장꾸리기를 중요한 정 책적과업으로, 산림복구전투의 선결조건으 로 틀어쥐고 큰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 다. 실례로 선천군, 린산군에서는 책임일군 들이 산림경영소사업정형을 매일 구체적으 로 료해장악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운 동시 에 매주 협의회에서 양묘장을 물질기술적 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고 조직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실천하였다. 1 5정보가 넘는 포전에서 각종 나무모들 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이 군들의 산림경 영소 모체양묘장은 그런 노력의 결실이다. 그러나 천마군, 봉산군의 실태는 이와 대조적이다. 야외재배장면적만 보아도 천

마군산림경영소의 경우 5월 8일현재 기

준면적의 20%에도 못미치고 다른 군들

에서는 야외재배장에 기둥을 수백대 세우

고 해가림발까지 번듯하게 설치했으나 그 런것은 찾아볼수 없었다. 모체양묘장의 나 무모밭면적도 기준에 채 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봉산군산림경영소도 마찬가지이다. 6월 5일현재까지도 야외재배장에 해가림발설 치에 필요한 기둥이 절반가까이 모자라는 상태였고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와 우 물도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았다.

천마군과 봉산군에서는 앞으로 수천정보 에 달하는 면적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 그 런데 양묘장이 이처럼 미약해가지고서야. 어떻게 군산림복구전투의 승리를 기대하겠 는가.

이미 총화된 문제이지만 천마군에서는 지난해에 나무모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 였다. 양묘장의 현 상태는 앞으로 그와 같 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겠는지 의심하 게 한다. 실지 올해 복철 군에서는 양묘장 이 제구실을 못한것으로 하여 나무심기계 획을 미달하였다. 산림복구전투에 나선 군 안의 전투원들에게 《총탄》을 제대로 공 급하지 못했으니 성과를 거둘리 만무한것

산림경영소로력문제 역시 같다. 당에서 산림경영소를 그처럼 중시하고있지만 천마 군과 봉산군에서는 산림경영소로력을 제때 에 보장하지 못하였다. 이것 역시 일군들의 속수무책을 보여준다고 해야 할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나무모영양단지생산문 제도 난판을 이겨내고 자체의 동력으로 설 비를 가동시킨 다른 산림경영소들과는 판 이하다. 천마군의 경우 나무모영양단지생 산설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운영을 위한 조 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거의나 사장되여 있는 상태였다.

사실 강원도라고 하여 다른 도들과 달리 양묘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데 필요한 조 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는것은 아니다. 하 지만 양묘장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당 정책의 요구대로 성과의 예비를 치밀한 조 직사업에서 찾으며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 으킨 결과 필요한 로력예비, 자재원천도 얻 어냈고 동력보장대책도 세웠다.

하다면 천마군과 봉산군에서는 어떻게 되여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 하나 똑똑히 꾸리지 못하였는가.

당에서는 나무모생산기지를 꾸리는데 투 자를 아끼지 말고 지방들에도 중앙양묘장 과 같은 현대적인 양묘장을 건설할데 대하 여 강조하였다. 그런데 이 군들에서는 양묘 장건설에 투자를 집중하고 산림경영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할 대신 앉아뭉갠것 이다. 나무모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당정책이 제시된지 오래지만 아직 1정보 짜리 야외재배장조차 제대로 꾸려져있지 않으니 이것은 과연 무엇을 보여주는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천마군, 봉산 군의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실태는 산림복 구전투를 대하는 일군들의 그릇된 태도를 여실히 드러내보이였다. 그렇다. 양묘장은 당정책을 대하는 립장과 관점을 비쳐보이 는 거울과 같다.

만약 해당 지역 일군들이 당정책을 심장 으로 접수하고 나라의 산림을 다시 추세우 는가, 못 세우는가 하는 전장에 나선 지휘 관이라는 자각밑에 용약 떨쳐나 당정책관 철을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고 완강하게 벌리였더라면 양묘장이 그런 형편에 처하 지 않았을것이다. 여기서 산림경영소 일군 들도 레외로 되지 않는다. 도와주길 바라면 서 당정책결사관철의 립장에 튼튼히 서지 못한 당사자들은 자신이 다름아닌 패배주 의에 빠져있다는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다.

0

 ∇

나

早

史

비

нη

괴

3

臺

嗱

있

계

Δ

찾게 되는 중요한 교훈은 당정책에 대한 립장과 관점이 바로서있지 않으면 그 관철 을 위한 조직력,전개력을 발휘할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조건부터 따지면서 얼마든 지 할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된다는것이다. 당정책을 즉시 접수하고 즉시 관철하는 높 은 당성, 당정책판철을 위해 물불을 가리 지 않고 투쟁하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 의 칼바람정신을 지닐 때 사업에서 응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일군들은 명심 하여야 한다.

지금 천마군이나 봉산군뿐아니라 다른 일부 군들의 산림경영소 모체양묘장에도

야외재배장이 기준면적대로 꾸려져있지 않 고 해가림발설치에 필요한 기둥 또한 제정 된 개수만큼 세워져있지 않다. 설비동력보 장대책, 가물피해막이대책도 철저하지 못 하다. 박천군처럼 산림경영소에 과학기술 보급실을 똑바로 꾸려놓지 않은 지역들도 있다. 이런 현상 역시 산림복구를 대하는 그릇된 태도에서 초래된것이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일군들이 있고 당정 책의 운명도 다름아닌 일군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 모든 일군들은 산림복구전투의 성과여부가 자신들의 역할에 달려있다는것 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 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도. 시. 군 책임일군들은 양묘장현대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 산림복구전투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양묘장을 완벽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지휘 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어야 한다. 산림경영소들에서 모체양묘장의 나 무모밭면적을 정확히 보장하고 야외재배장 을 기준대로 꾸리며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에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 다. 특히 도들에 온실을 나무모재배의 특성 과 용도에 맞게 시범적으로 잘 꾸리고 그 것을 일반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철저히 관 철하여야 한다.

각 지역 산림복구전투지휘부들에서는 산 림복구전투전망계획, 단계별계획, 년차별계 획을 집행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빈틈없 이 짜고들고 산림복구사업에서 사소한 편 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휘부 일군들은 전투현장에 나가 직접 실태를 료 해하고 즉시 대책을 세우는 사업기풍을 확 립하며 능숙한 조직지휘로 대중을 당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켜 산림복구전투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정치적사업이며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최대의 애국사업인 산림복구 전투에서 영예로운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 의 기대에 보답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

뜻 받들어 사철나무심기방법을 완성해간다

국토환경보호성에 파견된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들을 보충해주는 우리 식의

나무영양액도 주목할만

문제들을 해명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무심기를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내야 합니다. » 돌격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사철 나무를 심는 방법 을 빠른 기간에 연구완성할데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에 따라

지난해 1월에 조직되였다. 여기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과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 원, 도시경영성, 중앙과학기 술통보사를 비롯한 많은 단 위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일군들이 망라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중에 여름철에 나무 를 심을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본 사람은 없었다. 누구나 나무 심기는 봄과 가을에만 할수 있 는것으로 여겨왔을뿐이였다. 여름에 나무를 떠옮겨 심어본

누구에게나 명백한것은 우리 원수님께서 바라시고 의도하시 다는 결사관철의 신념이였다.

사람은 더우기 없었다.

사철나무심기방법연구는

성과들이 속속 이루어졌다. 가장 어렵고 중요한 연구 과제인 나무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약제개발사업에서 성과

서 난문제로 나서고있는 스 하였다.

성제도 있다. 나무를 떠옮길 때와 심은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또 는 뿌리내림촉진제 1 , 2호,

그 믿음은 돌격대원들속에 내재하고있던 기성관념을 여 지없이 깨버리였다.

가 뚜렷하였다. 안되는 짧은 기간에 10여 종의 약제들이 련속 만들어 져 도입에 들어갔으며 현실 에서 그 효과성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새로 만든 뿌리보호제는 배의 물을 흡수하는 고흡수 성수지로서 사철나무심기에 트로브스소나무를 비롯한 몇 가지 바늘잎나무모의 사름률 을 높이는데서 효과가 뚜렷

나무의 빛합성능력을 높여 주고 여러가지 생리활성물질 그러나 일군들과 돌격대원 과 유기물질로 뿌리내림을 촉진하고 생육을 개선하여 여름철나무사름률을 높일수 는것이라면 무조건 해내야 한 있는 《명록》과 천연생물활

름철에 잎이 마르는것을 방 지할수 있는 잎보호제, 뿌리 의 활성이 회복될 때까지 뿌 리에서 흡수하던 영양원소들 돌격대원들속에서 혁신적인 과 잎에 보내주어야 할 물질

하다. 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이 돌격대가 조직된지 1년도 지만 여름철큰나무옮겨심기 에서 나서는 많은 과학적인

몇가지 수종들의 뿌리분포 상태, 심은 후 잎의 물기함량 변화 등 기초적인 문제들을 밝힌데 기초하여 계절별나무 자체질량의 500~700 심기와 판리에서 제기되는 나무뜨는 시간, 흙덩이크기, 가지솎음, 여러가지 약제적용 방법들을 확정하였다.이와 함께 합리적인 뿌리끊기방법 과 옮겨심는 방법,심은 후 관리 등 여름철나무심기방법 에 관한 문제들을 원만히 해 명하여 여름철에 옮겨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80%이

> 상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 망을 열어놓았다. 용기에 의한 나무옮겨심기 와 관리방법연구도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우리 과학자,기술자들에 후새 뿌리가 빨리 내리게 하 용기크기를 결정하며 사철 식수용용기의 국산화를 실현 하나의 크나큰 믿음이였다. 온도가 높고 해비침이 센 여 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적극 드리는데 이바지하였다.

추진되고있다. 큰 용기에 의한 여름철식 수용나무보장을 위한 큰나무 양묘장이 꾸려지고 용기에 실지 옮겨심은 이후 수종별 뿌리분포상태와 발육상태, 새

뿌리수와 사름률을 조사하여 사철나무심기방법을 연구 여름철원림식수를 할 때 용 기채로 옮겨심어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할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여 가고있다.

정보자료수집과 보급을 맡 은 돌격대원들은 사철나무심 기와 관련한 선진기술자료와 발전추세, 우리 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자료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돌격대활동이 세계적인 수준에 서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

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 위전에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충정의 열도에 의해 이룩된 귀중하 연구성과들은 현실에서 벌써

지난해 새로 건설한 군인 식당주변 원림록화사업과 위 성과학자주택지구 원림사업 에 동원되였던 돌격대원들은 수종별에 따르는 합리적인 나무의 사름률을 85%이상 보장함으로써 이곳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은을 내고있다.

현재 과학기술전당, 미래과 학자거리 등 주요대상건설 원림식수사업에 동원된 많은 돌격대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 해 자기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완성하기 위하여 투쟁해온 긍지높은 나날들을 돌이켜보 며 돌격대원들과 일군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살려낼 자신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사철 나무를 떠 옮겨 심는 방법을 완성할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가 위대하고 원수님께서 하라는대로 하면 이 세상 못 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심장깊이 체득하였습

니다.》 이것은 조선로동당창건 일 흔돐을 맞으며 사철나무심기 방법을 빛나게 완성함으로써 경애하는 원수님께 충정의 보고를 올리기 위한 마지막전 투에 나선 일군들과 돌격대원 모두의 심장의 웨침이다.

강 철 웅

자들을 하나씩 골라잡고 연구 사업을 진행할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과학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실 연구소는 화학 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들이

대부분이고 산림과학과는 너 무나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

무슨 일이든 일군들이 신심 을 가지고 앞장서면 대중이

따라서기마련이다. 과학자들은 나무의 사름률 을 높이는데 중요하게 쓰이는 새로운 고흡수성수지개발에 펼쳐나섰다.

화학분야의 지식과 함께 위한 투쟁에서는 네일내일 이 따로 없으며 모두가 한 마음한뜻이 되여야 한다는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로 심 장을 끓이며 낮에 밤을 이 어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 벌려 완전히 국산화된

본사기자 전성 남 찍음

우리 식의 고흡수성수지를

만 들 어 낼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 하였다.

과 학 자 들 은 즉시 도입

시험에 들어갔다.

도입시험과정 또한 힘겨운

전투였다. 과학자들은 현장에 서 살다싶이 하였다. 그들은

누구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이들처럼 당정책관철을 위해 머리를 쓰고 아글타글 노력할 때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은 세월을 앞당기며 자랑

본사기자

연구집단이 되기까지

산림복구전투는 노력과 열 성만으로는 성과를 기대할수 튼튼히 키워 거목으로 자래 ※ 대를 마련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놓고볼 때 강원도산림과학연구소의 과 학자들의 과학연구사업경험 에는 주목되는 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 생물농약을 개발해야 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과학연구기관들 에서는 나무육종과 산립 조성, 산립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 을 연구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이곳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산림복구전투에서 절실한 문 제로 나서는 나무모생산을 더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기 위 한 투쟁을 벌릴 때였다. 도안 에 있는 양묘장들의 많은 면 적에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들 을 심었다고는 하지만 실지 나무모생산은 시원치 못했 다. 여러가지 조건들이 있었 으나 그중에서도 병해충에

없다. 하나하나의 나무모를 렵고 힘든 과제였는가 하는 것은 어느 한 연구소에서 생 울수 있는 과학기술적인 토 물농약개발을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오다가 복잡한 기술 적문제들을 끝내 해결하지 못한 사실을 놓고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산림복구전 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

> 였다. 과학자들은 주저없이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소장 리 정식, 실장 김문섭동무를 비롯 한 일군들은 결심을 더 굳게 가지고 과학연구수행을 위한

목표를 더욱 뚜렷이 세웠다. 목표가 선정되였다.

과학자들은 현장기술자들 과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였다.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해보았 지만 어느 하나도 생각했던 것처럼 풀려나가지 않았다. 실패를 거듭하는 속에서도

과학자들은 맥을 놓지 않았다.

산림복구전투에서 자신들이 맡 자애로운 영상을 심장에 새 한번 자각하고 전선에 총포탄 을 보내주는 심정으로 연구사 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구사들, 현장기술자들과 함께 수십차례의 기술협의회에서 벌레의 생리적특성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나갔고 성공의 열쇠를 찾기 위해 시간을 쪼개 가며 그야말로 불같이 살았다.

사색과 탐구를 거듭하는 의 불합리성을 찾아내고 새 로운 실마리를 쥐였다. 벌레 를 유인하여 제거하는 새로 운 구제용생물농약개발이였 단에서는 현장과 실험실을 하루에도 몇차례씩 오가면서

시험에 시험을 거듭하였다.

두고있다. 모든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것이다.

《실지 잡도리를 하고 달 라붙어 해보니 됩니다. 능히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나무라도 다 《이제는 우리 나라의 그

있다는 신심이 생깁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산림형편을 이대로 두고서는 누구도 나라의 주 인이라고 자부할수 없으며 애국에 대하여 말할수 없습

LICH. »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비날론 연구소에서 나 무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연 🤇

구사업을 적극 >

를 마련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 로작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 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

이 우거지게 하자》를 받아

안은 이곳 연구소의 일군들의

충동은 참으로 컸다. 그날 일군들은 과학기술이 라는 기관차를 앞세워야 산 림복구전투승리가 담보된다 고 늘 말은 하였지만 산림복 구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발벗고나서지 못한 자신들의 일본새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였다. 다음날 과학자들앞에서 연 구소의 책임일군은 이렇게 말 하였다.

《우리 연구소에서도 산림 복구를 위한 가치있는 연구종 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 삭 주 군 산 림 경 영 소 에 서 -

강 원 도 산 림 과 학 연 구 소 의 과 학 자 들 의한 피해가 막심하였다.

이 연구과제가 얼마나 어 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다시 연구집단은 여러 단위의 연

과정에 과학자들은 종전방법 100% 우리의 식으로 다.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 할데 대한 대담한 과학연구 그 가능성을 확증한 연구집

> 생물체를 다루는 연구사업 인것으로 하여 많은 난판이 조성되였지만 과학자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전투비행사들과 함께 나무심

기를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였다. 그리하여 과학자들은 기술적지표와 성능이 우월한 국산화된 우리 식의 땅속굼 벵이구제용생물농약으로 나 무모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 어놓을수 있었다.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산림복구전투 를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어 영양활성제, 물흡수 제, 종자피복제를 비롯한 가 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거

겨안으며 과학자들은 강심을

먹고 억척같이 일어서군 하

이들처럼 산림복구를 위한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 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갈 때 산림복구전투에서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고 온 나라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는 더 빨리, 더 훌륭하게 실현될

본사기자 김경철

당정책관철을 위한 자세와

> 연구과제를 수행하자고 해도 시간이 긴장하였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산림 과학에 대한 연구사업을 어떻

게다가 현재 진행하고있는

기때문이였다.

게 한단 말인가?) 누구나 난감해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있을 때 실장 김영수동무가 자리에서 일어 나 산림과학분야에도 화학전 문가들인 우리가 도울수 있 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것이 라고 하면서 방도를 내놓

아다 과학자들은 가능성을 타산 해보았다. 이렇게 되여 이곳 연구집단에서는 나무의 사름 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

실력과 함께 빠른 기간에 끝 낼것을 요구하였다. 온 연구집단이 부글부글 끓 었다. 일군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사업조건을 적극적으 로 보장해주면서 그들을 혁

신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

생물학분야의 지식을 동반해

야 하는 과학연구사업은 높은

그러나 새로운 연구과제수 행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세 계적인 추세자료를 분석하고 국산화할수 있는 고흡수성수 지의 재료를 선택하는것으로 부터 시작하여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한두가

였다.

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연구소의 과학자들 과 일군들은 당정책관철을

서로의 힘과 지혜를 합쳐가면 서 도입과정에 나타나는 결함 들을 퇴치하면서 긴장한 전투 를 벌려나갔다. 이렇게 연구 소에서는 짧은 기간에 연구과 제수행에서 성과를 이룩하여 나무의 사름률을 훨씬 높일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를 마련 하였다.

찬 현실로 펼쳐질것이다.

《구국전선》인터네트싸이트에 의 하면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 중앙위원회 선전국이 미제가 공화국 에 대한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때로부터 6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 여 25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 문》을 발표하였다.

호소문은 다음과 같다.

전체 국민들이여!

미국이 매국역적 리승만도당을 내 몰아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 때로부 터 65년이 되였다.

지난 6.25전쟁은 미국이 《한》 반도전체를 타고앉아 세계제패를 실 현할 야망밑에 미제침략군과 15개 추종국가군대, 《국군》을 포함한 200여만의 방대한 병력과 막대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한 강도적인 침략전쟁이였으며 우리 민족에 대한 전대미문의 대살륙전이였다.

전쟁 3년기간 미국은 인류전쟁사 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잔인하 고 야만적인 수법으로 수백만의 우 리 민족을 무참히 학살하고 신성한 조국강토를 재더미로 만들었다.

지금 이 땅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는 6. 25전쟁을 도발하고 우리 민족 에게 형언할수 없는 야수적만행을 감 행하였으며 지금도 새 전쟁도발책동 에 미쳐날뛰는 양키침략자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활화산처럼 터져나오 고있다.

이 땅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지 도 어언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대전시 산내 골령골을 비롯한 도처 에서 발굴되고있는 6.25전쟁시기 의 유해들은 미군야수들의 천인공노 할 살인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며 원

친미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리자

한의 복수를 절규하고있다. 미국은 전쟁 전기간 방대한 살인전

쟁장비들과 상상을 초월하는 반인륜 적살륙수법을 총동원하여 미쳐날뛰 였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 을 수호하기 위하여 용약 분기한 이 북군민앞에 무릎을 꿇고야말았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6. 25전쟁의 대참패에서 응당한 교 훈을 찾고 이 땅에서 물러갈 대신 오 있는가 하는것을 적라라하게 폭로해 늘 이 시각도 《한》반도지배야망을 꿈꾸면서 최신무력증강과 새 전쟁도 발책동을 끊임없이 벌리며 북침의 기 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있다.

특히 미국은 첨단무기를 동원한 핵 전쟁과 함께 생물무기를 배합한 세균 전으로 남과 북을 초토화하고 우리 겨 레를 멸족시킬 흉계를 꾸미고있다.

보라! 이 땅을 세계최대의 핵화약고로 만들어놓고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 습을 매일같이 벌리는것도 부족해 탄 저균을 끌어들여 《악마의 무기》 세 균탄을 삼천리강토에 들씌우려는 미 국의 살인귀적정체를.

살상률이 95%이상인 탄저균은 물 론 그보다 10만배의 맹독성을 가진 보툴리누스균까지 이 땅에 비밀리에 반입, 실험한 사실은 미국이 우리 민

족을 핵 및 생화학전의 실험용으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 이다.

반 제 민 전 중 앙 위 원 회

미국의 목적은 어제도 오늘도 제2 의 6.25전쟁도발에 있다.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한 이후 오늘 까지 2만여차례에 달하는 각종 대규 모합동군사훈련을 벌려온것은 그들 이 북침전쟁도발에 얼마나 광분하고

올해 년초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남북판 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한》 반도정세를 최악의 전쟁접경 에로 몰아간 미국은 최근에도 그 누 구의 《도발》과 《위협》을 떠벌이 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서 대 규모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련 일 광란적으로 벌리며 극도의 전쟁 열을 고취하고있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 땅의 군부호전광들과 보수패당은 《평 화시기에도 전쟁을 잊어서는 안된 다. 》는 망발을 내뱉으며 미국의 식민 지돌격대가 되여 동족을 겨냥한 침략 전쟁도발책동에 혈안이 되고있다.

권좌에 오르기 바쁘게 2015년까 지 넘겨받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 을 무한정 미국에 섬겨바치고 《한》 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 히 위협하는 《싸드》배치를 애걸하 는것도 부족해 북전역타격을 노린 각 종 미싸일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세 계 그 어디에도 없는 《한미련합사 단》을 조작하고 미국과 함께 새로 운 전쟁각본인 《4대작전원칙》이라 는것까지 작성, 공개하며 북침핵선제 타격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 바로

현 보수당국이다. 보수당국이 6.25전쟁일을 계기 로 지난 2002년에 있은 저들의 서 해도발사건을 완전히 외곡날조한 모 략영화 《연평해전》상영놀음을 벌 리며 대결과 전쟁열을 고취하고있는 것은 그들의 전쟁광기가 이미 한계 점을 넘어섰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중이 해마다 가증되는 전 쟁의 위험속에서 몸부림쳐왔지만 오 늘과 같이 일촉즉발의 위험천만한 전 쟁화약고우에 올라선적은 일찌기 없

《한》미호전광들의 무분별한 북 침전쟁광기로 하여 이 땅에서 제2의 6. 25는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닥쳐 오고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터진다 면 지난 6. 25전쟁과는 비교도 할수

선 전 국 이 없는 엄청난 핵재난과 함께 세균전 에 의한 대참사가 삼천리강토에 들 씌워지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명

호소문

백하다. 인디안을 멸족시키고 아메리카제 국을 세운 미국은 지금 이 땅에서 남 과 북의 온 민족을 멸살시키고 아시

아를 제패할 야망에 미쳐있다. 민족의 운명과 미래를 걱정하고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이 엄혹한 상황을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다.

전체 국민들이여! 미국에 의한 북침전쟁에서 이남땅

이 무사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미국과 친미호전광들이 몰아오는

핵전쟁,세균전의 재난을 막아야 할 당사자는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 국 민에게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 할 막강한 힘이 있다.

전국민은 《한》미호전광들의 발 악적인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 한 거족적인 투쟁에 총분기하자! 6. 25의 도발자 미국은 지금 제2

의 6.25를 망상하고있다. 전국민이 일치단결하여 미국의 북 침전쟁야망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마사하스

하늘과 땅,바다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미제침략군과 친미호전광 들의 북침핵전쟁연습 결사배격하자! 우리 민족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 전쟁의 온상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자! 신성한 이 땅에 탄저균이 웬 말이 냐, 탄저균 끌어들여 세균전 획책하 는 주《한》미군 축출하자!

탄저균의 10만배인 보툴리누스균 을 반입하여 우리 민족 멸살시키려 는 미국을 심판대에 끌어내자! 미군기지이전 반대, 전면철수 실현

하자! 백년숙적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식 민지통치 끝장내고 이 땅에 자주의

시대를 열자! 군부호전광들을 비롯한 친미독재 집단은 미국의 《한》반도지배야망 의 하수인이고 북침전쟁도발의 돌격 대이다.

미국에 추종하여 온 겨레에게 핵 전쟁의 참화,세균전의 재난을 덮씌 우려는 가증스러운 역적패당에게 준

엄한 철퇴를 내리자! 우리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한》미호전광들의 북침전쟁기도를 짓부시고 우리의 운명과 미래를 지 켜내자!

《세월》 호참사와 메르스참사도 부족해 전쟁재난까지 몰아오려는 보 수괘당을 단호히 쓸어버리자!

생화학전으로 민족멸살 노리는 미 국에 아부굴종, 국민에게 독재의 칼 부림을 하는 부패무능한 보수패당을 결단코 심판하자!

이북의 자위적전쟁억제력은 민족 의 안전과 《한》반도평화수호의 보

검이다. 이북의 전쟁억제력을 걸고들며 분 별없이 날뛰는 친미호전광들을 전국

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징벌하자! 북의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을 민 족만대의 재부로 간직하고 반미반 전평화수호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 없는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 기 치이다.

쳐나서자!

6. 15의 기치높이 제2의 6. 25광 풍을 몰아내고 평화와 통일의 새세 상을 마중하자!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 족공조, 평화공조를 실현하여 매국역 적들의 《외세공조》, 《전쟁공조》 를 산산이 박살내자!

승리는 자기의 힘을 확신하고 일 치단결하여 굴함없이 싸우는 우리 국 민에게 있다.

모두다 사생결단의 각오와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국과 친미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 한 투쟁의 봉화를 세차게 지펴올림 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기 어이 안아오자!

【조선중앙통신】

무자비한 징벌이 차례질것이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와 온 겨레와 세계의 공 정한 량심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남조 선괴뢰들이 지난 23일 끝끝내 서울에 유엔《북 인권사무소》라는것을 개설하였다. 주권을 외세 에게 송두리채 내맡겨 인권에 대해 운운할 꼬물 만 한 자격도 체면도 없는 괴뢰들이 벌려놓은 이 반공화국도발광대극은 허구픈 조소만을 자아내 는 희세의 정치만화이다.

지금 괴뢰들은 《보다 효률적이고 효과적인 현 장중심의 조치》라느니, 《력사적인 리정표》니, 《전폭적인 지원》이니 하며 개잡은 포수처럼 기 고만장해하고있다. 한편 이 기회에 《북인권법》 도 기어이 처리하겠다고 악을 쓰고있다.

그 가소로운 꼴을 지켜보는 세상사람들의 눈길 은 개탄과 분노로 가득차있다. 사람 못살 인간생 지옥,세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인권불 모지로서 국제적인 감시와 제재를 선참으로 받아 야 할 남조선에 유엔 《북인권사무소》라는것이 설 치된것이야말로 정의와 진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신성한 인권에 대한 극악한 모독이다.

미국상전의 부추김밑에 괴뢰들이 서울에 끌어 들인 유엔 《북인권사무소》로 말하면 온갖 허접 쓰레기들이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허위자료 들을 거두어들여 쌓아놓는 더러운 오물장이며 치 사하기 이를데 없는 모략의 소굴이다. 미국과 괴 뢰패당이 들고나온 《북인권보고서》라는것은 나 라와 민족, 고향과 혈육을 배반한 협잡군, 인간오 작품들의 황당무계한 거짓나발을 《증언》이라 고 긁어모은것들이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언론들 이 인간쓰레기들의 증언이 거짓인줄 뻔히 알면서 도 그것을 구실로 반공화국모략에 광분하는 괴뢰 당국의 망동으로 북남판계가 파국에로 치닫고있 다고 개탄하였겠는가.

이번 광대극은 우리에 대한 괴뢰들의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 골수에 꽉 들어찬 대결흉심 을 다시금 만천하에 드러내놓았다.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력사적인 6. 1 5 공동선언발표 1 5 돐이 되는 달에 이런 극악한 망동을 부린것이다.이것이야말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현 북남관계파국을 수습하고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동족의 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기대와 열망을 무참히 짓밟 는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범죄이다. 유엔 《북인권사무소》설치놀음은 박근혜일당의 동족 대결흉심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 있어서 력대 독재자들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금 괴뢰들이 반공화국 《인권》 모략에 갈수 록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대결정책의 총파산을 막기 위한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이 고립압살책동에 아무리 발광적으로 매달려도 우리 공화국은 끄떡없이 기 세좋게 전진하며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위력을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갈수록 진퇴량난의 구렁 텅이에 깊숙이 빠져들고있는것은 다름아닌 괴뢰 들자신이다.

괴뢰들이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감히 설치할 엄 두를 내지 못한 대결의 오물장을 자청하여 서울 에 들여앉힌것은 제 집안에 스스로 시한탄을 끌 어들인 천하에 둘도 없는 미련한 망동이다. 지금 남조선의 광범한 여론이 유엔 《북인권사무소》 의 서울설치가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일촉 즉발의 위기상황을 조성하고있다고 개탄하고있 는것은 결코 우연하지 않다.

우리는 이미 유엔 《북인권사무소》가 문패를 다는 순간부터 무자비한 타격대상으로 될것이라 는것을 엄숙히 경고하였다. 괴뢰들의 무분별한 마도이리 이제 부나과게는 더이사 독이킨수도 수 습할수도 없는 최악의 파국에로 치닫게 되였다.

민족의 운명과 북남관계의 전도는 안중에도 없 이 오로지 우리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해칠 개꿈만 꾸는 대결미치팡이들이 날치는 한 북남사 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죄는 지은데로 가기마련이다.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함부로 건드리며 불순한 야망을 드러내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려 는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남조선괴뢰들에게 다시금 엄숙히 선언한다.

종이범만도 못한 미국상전을 믿고 삽살개처럼 들 까불지 말고 몸서리치는 징벌의 시각을 기다리라. 영 민

6. 1 5 공동선언발표 1 5 돐 을 계기로 공동선언의 기치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고 파국에 처한 북남관계를 개선하 며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이어

차게 분출되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6.15공 동선언발표 15돐기념 민족공 동행사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방

나가려는 겨레의 통일의지가 세

해책동으로 말미 암아 실현되지 못하였다. 괴뢰패

당은 북과 남. 해 외민간단체들의 실무협의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리명박반역 《정권》 과 그뒤를 행사장소를 변경시킬것을 요구 남측본부도 12일 성명을 발표 하였으며 《순수한 사회문화교 하여 현 《정권》의 대결책동이 류》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행 행사를 파탄시켰다고 까밝히면 사의 《비정치성》을 강요하였 서 기만적인 《대화》 타령을 늘 다. 남조선의 반통일분자들은 어놓지 말고 진실로 평화와 협 력의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것 지난 5월 북남로동자통일축구 을 요구하였다.

대회도 이런 식으로 가로막았 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말로는 6. 1 5 공동선언을 존중한다고 하였지만 현실은 그들이 공동선 언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대결 만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을 명백 히 실증해주었다. 6.15공동선언발표 15돐

기년 민족곳동해사를 파타시키 보수당국의 처사에 격분한 남조 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당국의 동족대결정책을 준렬히 단죄규 탄하면서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이였다.

민가협량심수후원회를 비롯 한 많은 단체들은 당국이 《순 수 문화체육행사》라는 억지론 리를 들고나와 민족공동행사를 파탄시킨 사실을 폭로하면서 현 《정권》을 북남관계를 악화시 키고 통일을 반대하는 반민족적 《정권》으로 락인하였다. 그러

면서 동족대결정책의 철회를 강 력히 요구하였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1 1일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6. 1 5 민족공동행사를 의도적 으로 가로막은 현 보수집권세력 을 단죄하며 공동선언리행을 위 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의

지를 피력하였다. 남조선의 민족공동행사준비

보수당국은 6.15민족공동

행사가 실현되지 못하게 한것으

로도 부족하여 남조선의 각계 단

체들이 진행하려 하는 행사에 대

해서도 경찰들을 동원하여 살벌

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갖은

방해책동을 일삼았다. 하지만 남

조선각계는 반통일분자들의 책

동에도 굴함없이 14일 기념행

실천 북측위원회, 남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의 공동호소문이

랑독되였다. 호소문은 우리 민족

끼리 화해하고 단합한다면 얼마

든지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조

국을 일뗘세울수 있다고 하면서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

지를 공동운동기간으로 정하고

화해와 단합, 통일을 적극 추동

하는 특별기자회견이라는데서

해나가자고 지적하였다.

행사에서는 6.15공동선언

사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남조선의 민족공동행사준비 교류행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 위원회 상임대표는 6.15공 였다. 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북남관계 를 발전시켜나가는것이 투쟁목

표이며 공동선언을 리행하는 길 에 나라의 평화와 통일이 있다 고 하면서 모두가 통일운동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민주 로총 위원장은 6.15공동선

언이 열어준 자주통일의 길을

이은 현 집권세력이 가로막았다

고 하면서 모든 로동자들이 평

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투쟁에

떨쳐나설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발언자들은 6.15민족공동행

사가 분산개최된 전적인 책임은

현 《정권》에 있다고 비난하면

서 6.15의 정신에 배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책

동을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

다.행사참가자들은 6.15민

족공동행사는 이루어지지 못하

였지만 8.15민족공동행사는

반드시 성사시킬것이며 그를 통

해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중의 의지를 다시금 떨

행사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5.24조치〉 해제하고

〈대북정책〉 철회하라!》 등

남조선대학생련합도 이날 서

울에서 대학생통일문화행사를

열고 북남관계악화를 초래한 당

국의 북침전쟁책동과 《5.2

4 조치》를 규탄하면서 반통일

대결장벽을 허물고 북남대학생

우리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

의 구호를 웨치며 서울광장까지

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위행진을 하였다.

없는

한편 6.15광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산하 로동, 농민, 청 년학생, 언론, 학술본부를 비롯 한 부문별단체들과 14개 지 역본부는 15일 서울에서 **《**6.15−8.15광동운동 기간》 실천활동을 선포하는 공

은 《만나야 통일이다!》라는

구호아래 조국해방 70돐을

기념하는 민족공동행사의 성과

적보장을 위해, 민족의 자주와

평화수호를 위해 모든 힘을 다

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단체들

은 8.15를 계기로 북남로동

자통일축구대회를 성사시킬것

이라고 하면서 당국은 반통일

이 아니라 북남관계개선에로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도 여러 모임들을 가지였다. 모 임에서는 북남관계가 꽉 막혀있 는 지금이야말로 6.15공동 선언의 길로 나가야 하며 대결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이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새정치민 주련합 대표는 6.15공동선 언의 기본정신을 되살려 《5. 24조치》를 해제하고 북남관 동기자회견을 가지였다. 단체들 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 남조선의 반통 일세력이 아무리 발광해도 겨레의 간직된 6.15의 정신은 그

무엇으로도 말살할수 없다. 6. 15를 계기로 각계층이 벌린 통일행사들과 각종 집회들은 6.15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북남판계를 발전시키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지향이 날로 강렬해지 고있으며 괴뢰보수당국이 대결 정책을 전환하는것은 시대와 민 심의 요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

본사기자 장윤 남



주었다.

통일의지를 과시하는 남조선인민들

으로 구름을 잡아보겠다는것과 꼬물만큼도 없이 대조선적대시

미국은 아무리 기다려보아야 건에서 이를 짓부시기 위한 우

미국이 악습적으로, 병적으로 조선고립압살책동이 어떻게 산

굳어진 우리에 대한 판점과 구 산쪼각나는가를 세계는 톡톡히

될것이다.

목격하게 될것이다.

김정일동지의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 아 26일 교또조선중고급학교 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으며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 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

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 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조선중앙통신】

교장 조명호를 단장으로 하는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크나큰 은정 조선 로 동 당 대 표 단 과 꾸 바 공 산 당 대 표 단

회 【아바나 6월 25일발 조선중 앙통신】조선로동당대표단과 꾸바공산당대표단의 회담이 25 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청사

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꾸바공 화국을 방문하고있는 조선로동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강석주동

담 짂 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로동당 대표단 성원들과 박창율 꾸바주

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호쎄 라몬 발라게르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국제비 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공산당 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당활동 정형을 통보하고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판계를 더욱 발

한 연회에 초대되였다.

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 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 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이날 조선로동당대표단은 꾸 바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마련

보천보홰불상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 결속

보천보홰 불상체 육경기대 회 축구 1급경기가 끝났다.

지난 4일부터 11개 남자축구 팀과 6개의 녀자축구팀들이 참 가하여 진행된 경기에서 모든 선수들은 빨찌산식공격전법으 로 팀의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 면서 단결력을 남김없이 보여주 었다.

두개 조로 나뉘여 진행된 조 별련맹전에서 성적이 높은 리명 수팀과 평양팀사이의 남자결승

량팀 선수들은 경기 첫시작 부터 빠른 공련락과 공격마당 을 차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치렬한 공방전을 벌 렸다.

경기대회 축구 1급경기에서 1등 경기가 25일에 있었다. 을 하였다.

> 결국 현맹전의 방법으로 진행 된 녀자축구 1급경기에서는 점수

팀이 1등을 하였다. 남자 리명수팀과 선봉팀,녀자 압록 강팀과 평양팀이 각 각 2등과 3등을 하 였다. 보천보홰 불상체

> 급경기는 백두의 훈 런열풍을 세차게 일 으켜 나라의 축구기 술을 하루빨리 세계 리려는 선수, 감독 들의 드높은 열의를

로씨야를 방 문 하 였 던 조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최고인민회의 의장일행 귀국

로씨야를 방문하였던 최태복 귀국하였다.

같은 앙천대소할짓이다.

저들의 부질없는 망상이 실현되기

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군력이 백

방으로 더욱 강화되고 우리 인민

이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태의연한 태도를 고칠 생각은

되는 변화만을 보게 될것이다.

비행장에서 안동춘 최고인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 회의 부의장과 알렉싼드르 마쩨 인민회의 의장과 일행이 26일 고라 주조 로씨야련방 특명전권 대사가 마중하였다.

정책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는 조

리의 대응조치들 역시 실천적단

계에서 보다 강도높게 취해지게

선군조선이 울리는 병진로선

의 장엄한 포성앞에 미국의 대

재 로 씨 야 동 포 심 일 정 도 착

재로씨야동포 정 률 조선로동당 중앙 일심이 26일 평양 위원회 당력사연구 에 도착하였다. 소 부소장이 맞이하 비행장에서 리석 였다.

국 제 가 족 계 획 련 맹 대표단이 떠나갔다

테워드로스 멜레 획련맹대표단이 26 쎄 총국장을 단장으 일 비행기로 평양을 로 하는 국제가족계 떠나갔다.



진행될 체육경기 일 요 일 에 일요일(28일) 오전에 보천보 쏘프트볼경기가 모란봉체육단 화불상체육경기대회 모란봉체 에서 있게 된다. 육단과 경공업성체육단사이의 【조선중앙통신】

제18차 정일봉상 전국대권도선수권대회 제18차 정일봉상 전국태권도

지난 15일부터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는 태권도, 바둑경기들 이 있었다. 태권도 1부류경기에서 강원

선수권대회가 페막되였다.

도태권도선수단이 1등을, 황해 북도태권도선수단과 함경남도 태권도선수단이 각각 2등과 3 등을 하였다. 2부류경기에서는 해주태권

도전문학교가 1등을, 평성태권 도전문학교와 평양태권도전문 학교가 각각 2등과 3등을 차 지하였다.

바둑경기에서는 평양시태권 도선수단이 종합 1등을, 강원도 태권도선수단과 평안남도태권 도선수단이 각각 종합 2등과 3 등을 하였다.

페막식이 26일 태권도전당에 서 있었다.

리일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 회 부장, 관계부문 일군들, 태권 도선수들과 감독들, 청소년학생

들이 페막식에 참가하였다. 우수한 성적을 쟁취한 단체 와 선수들에게 우승컵, 상장, 메달이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 이 있었다.

김경호 조선태권도위원회 위 원장이 페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 태권도선수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밝혀주신 빨찌

산식공격전법을 경기마다에 철

저히 구현하여 좋은 성과를 이

룩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 감독들이 당 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 는 길에 자신들의 지혜와 정열 을 다 바침으로써 민족체육종목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

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 주 의 인 민 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 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무성이 《년례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존엄높은 우리 공화 국을 또다시 헐뜯은것과 관련하 여 26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25일 미국무성 민주주의, 인 년 나라별인권보고서》를 발표 드러났다.

《변화》에 대하여 운운하였다. 이자의 망언을 통하여 《인권 옹호》의 미명하에 어떻게 하나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 의제도를 전복할 야망을 기어코 로 보일리 없는것이다.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흉악한 기 권, 로동담당 차관보는 《2014 도가 다시금 백일하에 낱낱이 편 《변화》가 일어날수 있다고

우리의 이른바 《인권문제》를 과 적대감에 사로잡혀있는 미국 악의에 차서 걸고들며 그 무슨

의 눈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다 운 정치적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 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이 바

미국이 우리 내부에서 그 어 허황한 꿈을 꾸는것이야말로 손

이날 경기에서는 평양팀이 리 명수팀을 2:1로 이기고 이번

26일 압록강팀과 소백수팀사 이의 녀자경기는 2:2로 비긴 가운데 끝났다.

가 제일 높은 월미도

육경기대회 축구 1 적수준으로 끌어올 잘 보여주었다.

침략자의 간판을 도용한 행적을 유엔의

쏘도전쟁이 대군과 대군사이의 전 쟁, 련합국과 동맹국사이의 전쟁이였 다면 조선전쟁은 《세계제패》를 꿈꾸 는 대군과 엊그제 태여난 군대와의 전 쟁, 련합국세력과 청소한 일개국사이 의 보통상식을 벗어난 대결이였다.

이것은 지난 조선전쟁에 대해 당시 특파기자로 활동한바 있는 로씨야의 한 인사가 평한 말이다.

사실상 제 2차 세계대전후 조선을 세 계제패전략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시 험장으로,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차단시 키기 위한 마당으로 규정한 미제는 《십 자군원정》을 드디여 개시하였다.

이를 위해 미제는 당시에 동원할수 있는 인적, 물적자원을 긁어모아 조선 전선에 투입하였다. 3년간의 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1 5개의 추 종국가군대들과 방대한 괴뢰군무력, 일 본군국주의세력까지 끌어들인것도 바 로 이때문이다.

미제는 미구에 저들이 일으킬 조선 전쟁을 유엔의 이름으로 정당화하기 위하여 오래동안 면밀히 준비하였다. 미국이 조선전쟁을 도발하기에 앞 서 미리 짜놓은 각본이 그것을 립증해 준다. 여기에는 첫째로 북조선군대가 남조선을 《침략》하였기때문에 남조선 군이 북조선에 대하여 공격하였다는 것. 둘째로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제침략군과 그 추종국가군대를 전 쟁에 투입할수 있도록 유엔에 제소한

다는것이 제시되여있었다. 이러한 각본을 실행하기 위하여 미 국대통령특사였던 덜레스는 전쟁도발 전야에 38° 선일대를 시찰하고 《만 약 2주일만 견디여낸다면 이동안에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 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 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 록 할것이다. 》고 리승만을 부추겼다. 덜레스의 적극적부추김은 미국이 유 엔무대를 통하여 할수 있는 모든 준비 를 갖추어놓았으니 북침전쟁을 단행

하라는 지시나 같은것이였다. 이와 함께 미제는 《북조선군이 무장

공격》을 했다는것을 유엔에 제소하기 위하여 미국무성으로 하여금 《문건작 섯그루빠》를 미리 조직해놓고 유엔총 회와 안전보장리사회에 제기할 기초 문건과 채택될 결의안까지 작성해놓 도록 하였다.

조선전쟁도발이후 유엔의 이름을 도 용하기 위한 미제의 책동은 보다 광란 적으로 벌어졌다.

미제는 주도세밀한 북침전쟁계획에 따라 도발한 조선전쟁의 진상을 숨기 기 위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을 련이어 조작해냈다.

미제는 우선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 리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한 유엔안 전보장리사회의 결의를 날조해냈다.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 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미국대통 령 트루맨은 상세한 내용도 묻지 않고 즉시 유엔에 제소할것을 지시하였다. 조선전쟁이 저들의 북침전쟁계획에 따 라 제대로 진척된다는것을 트루맨자 신이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미제는 유엔담당 미국무성 차관보 히카슨으로 하여금 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소집을 요구 하도록 하였다.

한편 유엔주재 미국상임대표는 뉴욕 에서 유엔사무총장에게 국무성관리들 에 의하여 작성된 이른바 북조선이 《선 전포고》를 했다는 보고를 읽어주었다. 또한 미국정부의 긴급요청에 기초하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회의의 즉각소집 을 강요하였다. 전쟁도발의 책임을 우 리 공화국에 넘겨씌우는 미국측 결의 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 8 2 호로 강압통과되였다.

미제는 《유엔군》을 조작하여 조선 전쟁에 들이밀기 위한 결의도 날조해 냈다. 1950년 6월 27일 미제의 요구에 따라 다시 열린 유엔안전보장 리사회 회의에서 미국대표는 조선인민 군의 반공격을 《유엔자체에 대한 공 격》으로 묘사하였다. 그리고는 《무장공 격을 물리치며 그 지역에서 세계평화 와 안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

조를 남조선에 줄것을 유엔성원국들에

권교한다. 》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 다. 남조선에 대한 유엔성원국들의 《원 조》란 곧 미제의 대대적인 무력간섭과 추종국들의 조선전쟁참전이였다.

회의에서는 미제의 이 제안에 대한 반대와 기권이 있었고 조선대표를 회 의에 초청하여 교섭을 진행하자는 정 당한 의견도 제기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조선에 대한 무장간섭을 허용 하는 결의안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 의 제83호로 채택되였다.

1950년 7월 7일 미제는 영국 과 프랑스를 내세워 조선에서 감행하 는 미군의 군사행동이 유엔의 기발밑 에 진행되며 추종국가군대들을 저들 의 지휘밑에 두려는 목적을 담은 결의 안을 제출하는 놀음도 벌렸다.

이 결의안에는 《유엔군》을 파견한다 거나 《유엔군사령부》를 설치한다는 표 현조차도 없었다.

하지만 미제는 유엔결의를 합법화 하기 위하여 《련합군사령부》를 《유엔 군사령부》로, 저들의 침략군을 《유엔 군》이라고 우겨대였다.

도꾜에 있는 미극동군사령관 맥아 더를 《유엔군사령판》으로 겸임시키였 다. 7월 25일에는 도꾜에 있는 미 극동군사령부를 《유엔군사령부》로 변 신시켰으며 조선전쟁에 투입되는 미 군과 추종국가군대들에 《유엔군》의 모 자를 씌워놓았다.

이렇게 미국은 비법적으로 조작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에 빙자하 여 조선전쟁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 로 끌어들이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였 으며 저들이 조선에서 감행하는 침략 전쟁이 마치도 유엔의 사명에 따라 유 엔에 의하여 진행되는 《방어적》인것처

럼 미화분식하였다. 그러나 력사의 진실은 감출수 없는 법이다.

일본력사가 가미야후지는 자기의 저서 《조선전쟁》에서 6월 25일, 6월 27일, 7월 7일의 3개의 유 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사실상 미국의 결의안이였다고 폭로하였다. 이 가지고있던 《중화민국》의 대표권을

침략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 기 위하여 미제가 날조해낸 유엔안전 보장리사회 결의들은 전적으로 미제 의 각본에 따라 조작된것으로서 완전 한 비법이며 유엔헌장에 대한 란폭한 유린행위로 된다.

유엔헌장 제 3 4 조는 임의의 분쟁 또는 국제적마찰이나 분쟁을 야기시 킬수 있는 임의의 사태의 지속이 국 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판단하기 위하 여 그 분쟁이나 사태를 조사할수 있 다고 규제하고있다.

미제는 6월 25일 결의를 채택할 때 유엔사무총장앞으로 보내여온 남조 선주재 미국대사 무쵸의 보고와 《유엔 조선위원단》의 보고만을 기초문건으로 유엔에 제출하였다. 그것들은 미제가 고안해냈거나 리승만괴뢰정부로부터 얻은 정보자료에 기초한것이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전쟁발발 의 진상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도 확 인도 없이 사태를 일방적으로 외곡하여 제기한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리하 여 비법적인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유엔헌장 제32조는 분쟁문제가 상 정되는 경우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 의에 참가시킬데 대해 규제하고있다.

미제는 당사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대표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남조선괴뢰대표만을 회의에 초청하여 저들의 주장이 담긴 결의들을 채택하 도록 조종하였다.

유엔헌장 제27조 3항은 모든 문 제들에 대한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정 들은 모든 상임리사국들의 찬성을 포 함하여 리사국의 찬성투표에 의하여 채택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러나 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모든 결의들을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의 참가없이 비법적으로 채택하도록 조종하였다. 당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기능은

상임리사국인 이전 쏘련은 1950 년 1월 3일부터 7월말까지 장개석

반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대표권을 요구하면서 안전보장리사회 회의를 보 이코트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안전보장

리사회에서 이전 쏘련의 거부권은 공

백상태에 있게 되였다. 이러한 때에 미제는 조선에서 전면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을 유엔안전보장 리사회에 끌고갔던것이다.

하기에 당시 쏘련은 유엔사무총장에 게 보낸 전보들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 회 결의가 쏘련의 참가없이 채택되였 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는것, 결의는 유엔기발이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 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 울로 도용되도록 하고있다는것, 따라 서 쏘련정부는 안전보장리사회 결의가 비법적이고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무력 침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 된다 고 선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조선전쟁도발의 진상은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 힌것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톡 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면서 까지 우리 공화국을 없애버리려고 발 악하였지만 결국 영웅적조선인민앞에 서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고 력사에 치 욕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 지금도 여러가지 《문제》들을 조작 해내고 유엔의 이름을 걸어 우리 공 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 동하고있다.

오늘의 국제정세는 65년전 미국 이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여 조선문제 를 국제화하던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 1950년의 침략적, 강도 적수법이 그대로 통할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만일 미국을 선두로 한 어중이뗘중

이들이 이 땅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온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 은 벼리고벼리여온 선군의 총대로 원 쑤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강성번영 하는 통일조선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 떠세울것이다.

배 금 희

여러 나라 인사들 담화 발표

발표 15돐에 즈음하여 기네조 선친선협회 위원장 바누 케이타 가 1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일각하께서는 2000년

6월 평양에서 조선민족분렬 사상 처음으로 북남수뇌상봉 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 💶 🛮 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협회 6. 15북남공동선언이 채택발 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표되도록 하시였다. 공동선언 지금으로부터 15년전 은 조선의 통일문제를 조선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 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천명한 🗢 음으로 되는 북남최고위급상봉 민족자주선언이다. 그후 이 이루어졌으며 조선의 통일 6. 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과 평화번영의 리정표로 되는 10. 4선언이 채택되여 조선인 민의 통일운동에는 보다 밝은 🚺 🛛 다. 이것은 6. 15통일시대를 열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6. 15공동선언은 력사상 처 음으로 조선의 북남수뇌상봉 에서 합의되고 국제무대에서 ◐▮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도 환영받은 조선민족의 공 👕 동의 통일대강이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의 통일을 위한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공명정대한 **분**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제안들을 수차에 걸쳐 내놓 **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 았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마치 저들은 대화를 원하는 제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 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 거부하는것처럼 진실을 외곡하고있다. 우리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하루빨 리 철회하고 남조선에서 저 들의 침략무력을 즉시 철수

북남공동선언을 존중하고 리행 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을 높이 받들어 나가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 에 조선인민은 반통일세력들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고 나라의 통

할것과 남조선당국이 6.15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 일을 기어이 이룩할것이다.

력사적인 6.15북남공동선 언발표 15돐에 즈음하여 남아 프리카,타이인사가 15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남아프리 카공산당 음푸말랑가주위원 회 비서인 남아프리카 조선인

지금으로부터 15년전 평양 에서는 김정일동지의 열렬한 민족에에 의하여 분렬사상 처 력사적인 공동선언이 채택되였 어놓았다. 우리들은 6. 15북남 공동선언을 전적으로 지지하 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

드시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 신을 표명한다.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 원장 쏭치트 풀랖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신년사에서 남조선당국이 도 할수 있으며 분위기와 환 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 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

다고 언명하시였다. **プト** 조선의 북과 남이 서로 대 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 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다. 조선인민이 우리 민 족끼리의 리념에 따라 통일문제 해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

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들의 생활모습을 엿볼수 있다고

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

다. 조선민족의 전통과 우수성

이 세계에 자랑떨쳐지고있는것

은 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화

를 빛내이는것을 민족의 운명과

관련한 중대사로 보신 조선인민

【조선중앙통신】

세균전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반인륜적흉계

소조가 우리 인민에 대한 미국 의 세균전흉계를 규탄하여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 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은 1950년-1953년 조선전쟁에서의 참패 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조 선인민에게 세균전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반인륜적흉계를 꾸

뻬루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써도 조선인민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군 령 장 이 신

김정은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 를 받는 조선인민은 온갖 형태 의 전쟁과 도발에 다 맞서싸워 최후승리를 이룩할 만단의 준비 지금 미국이 세균전으로 조선인 면 그것은 어리석은 오산에 불 과하다. 우리는 조선인민을 겨

인민공화국에서는 민족의 우수 한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 기 위한 사회적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 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다시한번 굳은 지지와 련대성

를 갖추었다. 조선의 핵위력, 군 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사력에 대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전 범 자 의 《이라크가 강력하고 보다 효률적인 정부》를 구 성해야 한다느니, 《이슬람교국가》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 사람들의 민심을 얻어야 한

다느니 뭐니 하는 소리를 늘어놓았다. 주권국가인 이라크를 무력으로 짓뭉개고 테 로와 보복의 란무장으로 만든 전범자들이 《강 력한 정부》를 운운하는것자체가 이 나라 인민 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이 이라크사람들의 민심을 얻기에

는 지은 죄가 너무나도 크다. 지금에 와서 이라크인민들은 자국에 《대량살 륙무기》가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

냥한 미국의 반인륜적인 세균 전흉계를 단호히 규탄하며 미 국의 흉계에 대처하여 강경립 장을 천명한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성명

미고있다. 미국은 그 무엇으로 민을 위협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을 표시한다.

미국방장판 애슈톤 카터가 국회청문회에서 다줄것이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킨 미국의 기 가로막는 갖가지 조건이 뒤따 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허 튼 선전이 완전한 거짓이며 자기들이 속았다는것 을 깨닫고있다. 이라크전쟁에서 수많은 민간인 이 죽었다. 사망자가 100만명에 달한다는 설 도 있다. 이라크사람들은 이처럼 참혹한 죽음을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전범자 미 국이 《강력한 정부》요, 《민심》이요 하며 아무 리 열심히 나발을 불어대도 미군의 군화밑에 서 피에 절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맛볼대 로 맛본 이라크인민들이 침략자, 강점자를 과 연 용납하려 하겠는가. 가소롭다.

현 도

여래

- 파키스탄의 남부지역에서 최근 열파피해가 확대되고있 다. 열파로 현재 사망자수는 120여명으로 늘어났으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있다.인 명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카라 치시이며 이곳에서 기온이 45 ℃까지 올랐다고 한다.

당국의

일 본 에 서

이 강행추진하는 안전보장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녀성들의 대중

적인 집회가 벌어졌다.

일본의 도꾜에서 20일 당국

나 라에서 자연 회해

- 니까라과의 수도에서 12일 무더기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 다. 400채이상의 살림집이 파 손되였으며 주민지역들에 대한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피해자수는 약 1 600명에 달 한다고 한다. 현지에서 긴급구 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식량위기 악화 네팔에서 지난 4월과 5월에 있은 대지진의 후과로 식량위

기가 악화되고있다. 19일 유엔대변인은 현재 이 나라에서 100만명의 주 민들이 식량부족난에 시달 리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

가져온 미국에 저주를 보내고있다. 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에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밝혔다. 그는 동유럽과 발뜨해연안국가들에 중무기들 과 병력을 영구배치하려는 미 국의 계획을 비난하면서 만일 계획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

때가 되였다고 하면서 그는 아

배격할것을 호소

랜 력사를 가진 민족문화유산의

전과 번영을 위한 기초로 될수

이제는 외세의존을 끝장낼

그는 대륙나라들의 진보를 프리카나라들이 서방의 《원조》 르는 서방의 《원조》가 결코 발 강조하였다. 증 강 책 동 무 력

없다고 까밝혔다.

립장 응 할 丑 로씨야국방성의 한 고위관리 것은 과거 랭전시대이후 미국

과 나토의 가장 공격적인 조치

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로씨야 도 서부전략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것이외에 다른 선택이

방 글 라 데 슈 신 분 게 부르면서 민족적긍지와 자부

족적특성을 담은 민족옷을 사랑 태가 다양하다. 특히 조선녀성 하고있다. 조선옷은 민족의 감 들이 즐겨입는 치마저고리는 세 심을 한껏 자랑하고있다. 조선 정정서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오 을 방문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어

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조선인민은 민족옷을 장려하 고 민족음식을 즐겨먹으며 노래

하나이다. 남녀로소 모두가 즐 겨입는 옷으로서 그 종류와 형 도 조선민요가 제일이라며 흥겹

> 지난 25일은 모잠비끄독립 및 공화국창건 40돐, 우리 나라와 모잠비끄사이의 외교관계수립 40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6세기부터 외래침략자들의

끄는 1700 ~~~~◎ 년에 완전한 식

이나 건설장들에 끌어다가 강제 로동을 시켰는가 하면 지어 그 들을 해외에 팔아 돈벌이를 하 였다. 또한 수세기에 걸쳐 금을 비롯한 이 나라의 지하자원과 농

착취와 압박이 있는 곳에는

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인민 오랜 기간 식민주의자들의 야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던 모잠비

민지로 전락되 였다. 식민주의

작물을 마음대로 략탈하였다.

만적인 통치밑에서 갖은 고통을 겪어온 모잠비끄인민은 자유와 독 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줄기찬 투 쟁을 벌렸다. 로동자들의 총파업

느굣을 돌아보아도 조선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우수성을 담은 수

자들은 원주민들을 저들의 농장 개되였으며 투쟁은 날이 갈수록 의 1 0여년간의 민족해방전쟁에 더욱 적극화되였다. 모잠비끄해 방전선은 1964년 9월 전인 민적인 무장폭동을 일으켰다. 이

것을 계기로 외래침략자들의 식 민지통치를 청산하고 민족적독 립과 자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모 잠비끄인민들의 해방전쟁이 시

의 위대한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조선중앙통신】 하는 투쟁을 힘차게 전개하여온 이 나라 인민들은 1975년

호를 모잠비끄공

6월 25일 마침내 독립을 이룩

하고 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모잠비끄인민은 식민지예속의 쇠 과 대중봉기들이 전국도처에서 전 사슬을 벗어던지게 되였다. 19

> 하 여 화국으로 고쳤 0000 다. 모잠비끄인민 서의 승리는 무장투쟁만이 식민 지피압박인민들의 자유와 독립을 이룩할수 있는 가장 정당한 길이 며 자기의 운명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인

> 민들앞에서는 그 어떤 원쑤들도 무력하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 립

반드시 반항이 있기마련이다. 작되였다. 식민주의자들을 반대

엄마전 미국 하와이주에 간 일본의 오끼나와현 지사와 오끼 나와현의회 의원들이 현지에서 미해병대 15원정대에 소속된 수직리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레이》 1대가 추락한 사 고현장을 돌아보았다. 사고는 지난 5월 1 7일에 일어났다. 하와이주의 해병대훈련지역에서 군사연습에 광분하던 신형수송 기는 오아후섬의 벨로우스군사 기지에 착륙하려다가 갑자기 균

다. 그중 2명은 죽고 여러명이 부상당하여 병원에 실려갔다. 미국의 하와이주에서 《MV-22 오스프레이》가 추락하여 사고를 낸 사실은 일본국민들에 게 충격을 주었다. 특히 오끼나 와현을 비롯하여 주일미군기지 들이 전개된 지역들에서 사는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있다.그 때문에 오끼나와현의 정객들이

형을 잃고 추락하였다. 신형수송

기에는 4명의 승조원을 포함하

여 20여명의 탑승자들이 있었

돌아보니 사고가 일어난 벨로 우스군사기지주변은 숲으로 되 여있고 살림집들은 없었다.

부랴부랴 하와이주의 사고현장

을 료해하였던것이다.

《오스프레이》는 이러한 기지 에서 떠서 바다를 향해 날아가 거나 바다에서 날아와 곧장 기 지에 착륙하게 되여있다. 그러므 로 사고가 나도 민간인들이 피 해를 입을것은 하나도 없게 되 여있다. 반면에 오끼나와현에 있는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지 는 빼곡이 들어찬 살림집들로 둘러막혀있다. 이 기지에 《오스 다. 수직리착륙수송기들은 일상 만일 《오스프레이》가 공중에 서 사고로 불시에 추락한다면 살림집들에 떨어질 가능성이 충 분하며 그렇게 되는 경우 숱한

대참사로 되었을것이다. 》라고 불안을 표시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은 미국이 군사기지를 곳에 전개하였지만 일본땅에서 는 주민지대속에 설치해놓고 운 영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 다. 일본인민들의 생명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것이다.

러차례의 사고가 일어났다. 마로끄에서 미해병대작전용으 로 개발한 《MV-22 오스프레 이》가 훈련중에 추락하여 여러 명이 죽고 부상당하였다.

그로부터 두달도 채 못되여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미공군 의 특수작전용으로 개발한 《CV-22 오스프레이》가 또다 시 추락하여 사고를 냈다. 이후 에 미국남부 노스 캐롤라이나주 런 사고는 완전히 피할수 없 에서 미해병대의 《MV-22 오 다.》고 말하면서 현시점에서 스프레이》가 비행중에 기체에 고장이 생겨 민용비행장에 긴급 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오스프레이》가 주일미군기지

들에 배비되기 전까지 미국본토 와 해외에서 결점을 발로시킨 사 고는 무려 3 0건이나 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일본정부를 강박하여 오끼나 와현의 후덴마미해병대항공기 지에 신형수직리착륙수송기들 을 배비해놓았다. 그것도 성차 지 않아 지난 5월 미국방성은 2017년부터 도꾜도에 있 는 요꼬다미공군기지에 《CV— 22 오스프레이》를 배비한다

서고있다. 오끼나와현 지사는 하와이에서 발생한 《오스프레 이》의 사고원인이 밝혀질 때까 지 미국은 수송기들의 비행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

해나서고있다. 국민의 항의가 비발치듯 하자 일본정부도 사고원인을 해명하 여 시급히 설명해줄것을 미국에

미국은 의심되는 점은 없다고 일본의 요구를 밀막으면서 《오 스프레이》의 일상적인 운용을 중지하지 않을 의도를 로골적으 로 드러내놓았다.

《오스프레이》의 안전문제를 맡 아보는 한 미군장교는 하와이에 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그 《오스프레이》가 미해병대가 가 지고있는 비행기들가운데서 《가 장 안전하다. 》고 주장하였다. 다시말하여 사고가 가끔 일어나

는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오스 프레이》가 제일 안전한 비행기 이기때문에 일본이 우려할 필요

문제는 일본정부의 태도이 다. 일본방위상은 국회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라는데서 미국 으로부터 주일미군기지들에서 의 《오스프레이》운용계획에 변 경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기만 하였을뿐 미국에 신형 수송기의 운용중지를 요구할 강 한 의지는 내비치지 못하였다.

그보다 앞서 일본내각관방장 관은 미국방성이 도꾜도의 요 꼬다미공군기지에 《CV-22 오스프레이》를 배비한다 고 발표하였을 때 《일본을 둘러 싸고있는 안전보장환경이 엄혹 하다. 》느니, 《아시아태평양지 역의 안정에도 이바지한다.》느 니 뭐니 하면서 미국의 계획을 환영해나섰다. 그뿐아니라 일본 은《오스프레이》 1 7대를 미 국으로부터 구입하여 《자위대》 기지에 배비하려 하고있다.미 국정부는 신형수송기를 일본에

한 상태이다.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있는 일본 의 립장으로 하여 위협과 고통을

받는것은 바로 일본국민이다. 오끼나와현 주민들은 《오스프 레이》가 자기 집우로 날아갈 때 마다 《공포를 느낀다.》고 하소 연하고있다. 또한 주일미군기지 다 내는 소음으로 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미군의 반잠초계기를 비롯하여 전투기 들이 날 때마다 발동기소리가 너 무 요란하여 주민들은 《집이 흔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하다.》 《밤에 깜짝 놀라 깨여날 정도이 다. 》라고 말하고있다. 주민들은 항상 평온한 생활을 못하고있고 심한 정신적고통을 겪고있다.

2004년 8월에 후덴마미 해병대항공기지의 한 군용직승 기가 추락하면서 오끼나와국제 대학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 생한적이 있다.

오끼나와현을 비롯하여 주일 미군기지주변 주민들은 그때의 사건을 자주 돌이켜보면서 자기 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에 대 해 끊임없이 호소하고있다. 일본의 한 지방재판기관이

주민들의 호소와 관련하여 《자 위대》의 야간비행금지를 판결 하였지만 미군전투기에 대해서 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 고있다. 《나라의 지배가 미치 지 않는 제 3 자의 행위》라는

리유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의해 주일미 군기지에는 일본의 법률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되여있다. 결국 주일미군기지로 하여 고통을 당 하는것은 일본국민뿐이다.

제 나라 국민의 안전을 지켜 엄중한 위험을 몰아올수 있다.

본사기자 리경수

국회청사앞에서 진행된 집 회에는 약 1만 5 000명의 녀 임에 참가하고있던 흑인들에게 성들이 참가하였다. 인간사슬 사격을 가하여 9명을 야만적으 을 형성한 녀성들은 해외에서 로 살해한것과 관련하여 일어 이어 그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부당한

군사작전을 벌릴수 있는 권한 을 《자위대》에 부여하려는 당 국의 위험한 시도를 규탄하면 서 현 정부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한편 일본인들속에서 현 당국 이 강행추진하고있는 안전보장판 련법안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

아가고있다. 21일 교도통신이 진행 한 전국적인 여론 조사결과에 의하 면 응답자의 58.7%가 이 법 안에 대해 반대립 장을 표시하였다. 이것은 5월에 있 은 조사때보다 11. 1% 더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콜럼비아에서 20일 당국의 인 종차별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

참가하였다.

으로 무고한 흑인들이 목숨을 잃고있는데 대해 강력히 항의

인 시위가 벌어졌다.

정책을

난 시위에는 수백명의 군중이 그들은 당국의 인종차별정책

17일 백인범죄자가 기도모

영 국 에 서

반대하여 와 시위들이 벌어졌다. 런던의 중앙은행앞에서 진행

였다.

된 집회에는 약 7만 5 000명 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정부가 근로 자들의 생활처지에는 아랑곳없 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조 치를 취하는데만 급급하고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였다.

국의 부당한 조치로 사회적불평 등이 더욱 깊어만 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항의시위들은 리버풀, 글라스

국회청사앞까지 행진하면서 당

고우 등 주요도시들에서도 있었



방글라데슈신문 《데일리 포 조선민족의 우수한 전통과 문회 크》 9일부가 《조선의 민족전통》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 다. 신문은 오늘 조선민주주의

마비상태에 있었다.

서방의 《원조》를 케니아대통령 우후루 케니아 타가 최근 아프리카나라들이 서방의 《원조》를 배격할것을

미국의 CH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프레이》24대가 배비되여있 적으로 비행하고있다고 한다.

민간인들의 생명이 위험에 빠져 들게 된다. 오끼나와현의 정객들은 이번 에 사고현장을 료해하고는 《오 끼나와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제땅에서는 주민지대와 떨어진

미국이 개발한 《오스프레이》

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있는 비

행기이다. 2012년에만도 여

가 없다는것이다.

고 발표하였다. 오끼나와현과 도꾜도의 주민 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항의해나

요구해나섰다.

후덴마미해병대 항공기지에서

팔아주는 문제를 국회에 통지 미군기지들을 제땅에 끝까지 놓아두려 하고 미국의 아시아태 평양지배전략에 적극 추종하면서

들에서 전투기들이 비행할 때마

주지 못하고 고통을 덜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대미추종정책,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은 앞으로 일본땅에 상상할수 없는

¬-511002 (정기간행물번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대회주의교양부 372-3528, 사회주의교양부 372-4328, 사회주의교양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